

국민의힘 대혁신 깃발 올렸다

장동혁 새 대표, 강력한 對與 투쟁 선언



이규진
총괄부회장

지리멸렬 분열과 혼란을 겪으며 빈사 상태에 빠졌던 국민의힘을 살려낼 구원투수가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실시된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장동혁이 바로 주인공이다. 판사 출신 재선의원인 장동혁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예상치 못했던 '큰 승리'를 거두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김문수 후보 21만7935표, 장동혁 후보 22만302표를 각각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득표율로 보면 장 신임대표 50.27%, 김문수 후보 49.73%로 차이는 0.54%포인트(2367표)였다. 그야말로 박빙의 결과였다. 장 신임대표는 이날 당선자 수락



장 신임대표가 선출된 것은 당내 강성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반탄파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표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하는 등 '윤어게인' 세력을 적극 공략했다. 반면 김 후보는 '통합'을 강조하며 친한계까지 끌어 안았으나 반작용으로 강성 지지층이 장 대표로 몰리는 바람에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장 대표는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와 특검수사라는 거센 폭풍에 맞서면서 그동안 리더십 부재 속에 빛어졌던 당내 혼돈을 수습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 그가 강조한 특단의 대책은 인적 청

당내 강성 지지층 결집...김문수 후보 눌러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당원의 염원을 담아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포부를 밝

혔다. 국민의힘 새 대표로 강력한 대(與)투쟁을 내세운 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함께 초강성 여야대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산으로 친한계를 비롯한 찬탄파를 정리함으로써 선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내 당파싸움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 큰 고비 넘겼다

이재명-트럼프 상호 불신 해소에 진전

국민의 큰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된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상대로 우선 소나기는 피했다는 점에서 절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좌파 정치가로 인식되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무대였고, 그래서 더 조마조마 했던 한미정상회담이었기에 큰 사고(?) 없이 기존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허물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과라면 성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상견

례 자리라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를 굳이 따지는 것은 성급하긴 하지만, 트럼프발(發) 세계 관세전쟁이 진행중이고 미국의 중국 적대정책이 발효 중인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 큰 관심 속에서 개최된 것은 사실이었다.

"성공하지 않은 정상회담은 없다"는 국제정치의 불문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이나 언론 발표문 등 결과물이 생산되지 않았고, 정상회담 뒤엔 으레 따르게 마련인 공동기자회견조차 없었기에 뭔가

찝찝하기 짝이 없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양국 정상 간 상견례 회담이라고는 하지만 긴급한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양국 정상은 큰 그림만 그리고 구체적 현안은 실무 쪽에 맡기는 로드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그렇지 정치가인 양 정상이 공식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생략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백 번 양보해 현안이 워낙 많고 중대하기 때문에 실무적 협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엇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배려는 했어야 했다.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양국 정상은 분위기 띄우는 말잔치만 신나게 벌이고 골치 아픈 현안은 뒤로 미뤘다고 생각할 수 있다.

<2면에 계속>

대한언론 특별기획 <기사 9면>

박정희 경제 기적 재조명

이재명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성명서

대한민국 국회는 5일 언론자유를 해치고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방송3법” 중 첫 번째인 ‘방송법’ 개악안을 입법부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로 통과시켰다. 나머지 2개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곧 통과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국민 영향력이 큰 방송이 진보좌파 세력에 장악되면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은 그들의 의도에 놀아나게 되고 결국은 이 땅의 언론자유는 말살되게 될 것이다. 왜 이재명정권의 핵심 진보좌파들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가? 바로 독재의 유혹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란 소동과 특검 소란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민주당 내에서는 ‘30년 정권’ ‘50년 정권’

을 준비하지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권 때 이루지 못한 장기독재를 반드시 소원 성취하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방송3법’ 개정은 개악

역사상 모든 독재정권은 언론 장악을 시작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보라! 히틀러의 나치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정권을…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모든 공산당 정권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았다. 그래서 인류를 암흑의 세계로 밀어 넣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 같은 엄중한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자유가 질식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이 땅의 언론들은 유구무언

(有口無言)으로 잠잠하기만 하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누워버리는 잡초 신세를 자초하고 있다. 원로 언론인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훗날 우리의 후

배들과 자손들이 2025년의 언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 것인가?

이 땅의 언론인들이여! 방송인들이여! 더 늦기 전에 분노하고 쫓겨하라!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전사가 되어 수많은 선배들이 목숨바쳐 지켜왔던 언론자유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유지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2025년 8월6일

살판 **대한언론인회**

마무린씨 > 권영섭 <



안보·무역등 구체적 현안 뒤로 미뤄

<1면에서 이어서>

실제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동맹 현대화)이나 농산물 수입개방 문제 등 시급한 문제는 다루지지 않았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건 노출을 가깝스로 피한 것”이라는 영국 BBC 방송의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훗날 호된 청구서가 날아 올 가능성이 크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교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나마 양국 정상들의 입이 맞은건 북한문제에서다. 북한문제 접근은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 아니기에 립서비스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동의가 상대적으로 쉽다.

공개된 기자간담회 형식의 1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문제 제는 제가 개입한다고 개선되기 쉽지 않은 과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기 계신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치켜세웠고 트럼프는 즉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여러 차례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한 것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핵심인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조정 문



제는 구체적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큰 방향에서는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국은 과거 안미경중(安美經中) 태도를 취한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앞으로의 한국 외교방향을 확실히 밝힌 중대한 발언 이랄 수 있다. 이 한마디로 워싱턴에 퍼져 있는 ‘친중반미(親中反美)’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중(對中)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서 숙청, 혁명 벌어져”

이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중 발생한 유일한 해프닝이라면 회담 예정 시간을 3시간 남겨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문자를 띄운 것이다. 그리고 회담 직전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최근 며칠 한국의 신정부가 교회들을 잔인하게 급습했고, 심지어 미

군기지에도 들어가 정보를 취득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이야기 전말은 이렇다. 얼마전 한국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미국에서는 목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종교탄압으로 간주해 중요 사안으로 다룬다. 특히 침례교 목사인 김 이사장은 미국 인맥이 넓어 트럼프 집권 1기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연결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인공이다.

미군기지 수색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의 전모를 수사한다며 미국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 수색해 논란을 빚은 사건이다. 한국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행동이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규진(총괄부회장)

“정청래, 국힘 부인은 反정치행위다”



박종서
본회 전 사무총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겸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대화는커녕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행사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눈길도 주지 않고 상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정 대표가 그러니까 송 위원장도 덩달아 같이 한다. 여야가 의정단상에서 얼굴을 붉히고 막말을 주고받으며 심지어는 몸싸움을 벌인 적은 있어도 이처럼 상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작태다.

정 대표는 민주당 경선 내내 국힘을 해산시키겠다고 했다. 대표 수락 연설에서는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며 “국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취임 인사도 국힘을 뺀 나머지 야당하고만 했다. 기자들이 “국힘과 정말 안 만날 것이냐”고 물어보면 “악수는 사람과 한다”고 했다.

국힘이 탄핵과 대선에서의 대패 이후에도 ‘윤 어개인’ 논란 등을 자초한 것은 사실이다. 야당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숫자가 107명으로 적다는 타령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란 등 3대 특검의 칼날에 당이 풍비박산 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여당 대표가 제1야당을 부인한다거나 해체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행위다.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힘 부정은 정치 자체를 파괴하는 반(反) 정치행위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대화민주주의’를 천명한 바 있다. 통합과 대화는 일방적일 수 없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지금의 민주당의 상대는 제1야당인 국힘이다. 정 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5.8.15.(서울=연합뉴스)

표는 대통령과 반대로 행동하려는 게 아니라면 제1야당과 대화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짧은 정의는 “야당이 있는 체제다”라는 것이다. 여당만의 일당제 국가를 민주주의라

모두 계엄해제에 찬성했다. 특검수사로 의원 중 일부가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도 그건 의원 개인에게 혐의가 있는 것이지 당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정 대표는 또 “통합진보당은 ‘내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힘은 현재로서는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일 정도로 만신창이다. 반탄파, 찬탄파로 나뉘어 싸우는 통에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성찰도 앞으로의 비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

이재명 “대통령과 與대표입장 달라…野대표 만날것” 정당운명은 당원이 결정…정대표, 관여는 ‘어불성설’

고 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 애덤 세보르스키의 정의는 더 엄격하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여당이 집권에 실패하는 체제”다. 야당이 있지만 집권을 여당만 한다면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 대표는 이참에 야당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재명의 민주당’ 자리에 ‘정청래의 민주당’이 들어선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의 공천권을 주도할 수 있게 된 정 대표는 확고한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는 팬덤 당원들의 뜻대로 당을 운영하겠다고며 권리당원을 권력당원으로 만들고, 그들을 앞세워 적대정치를 이끌 계획을 시작하려는가 보다.

정 대표는 국힘을 해체해야 할 이유는 ‘내란정당’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잘못된 인식이다. 국힘 의원들은 계엄 당시 우왕좌왕하다가 한동훈 당시 대표의 독려로 18명이 투표에 참여해

예비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만으로 해산됐다”며 “국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통진당은 ‘이석기내란 음모 사건’ 하나로 해산 된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그래서 헌법 제 55조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조항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압도적 의석을 갖고 폭주해온 민주당이 정당해산심판청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다.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8조 4항에 정당해산 조건과 과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당 특권’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을 바꿔 청구조건을 추가할 경우 위헌 논란을 가져올 것은

진해산하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정당의 운명은 당원이 결정하고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정 대표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 대표가 끝까지 국힘의 실체를 부정하고 해산하려 든다면 정당정치는 전쟁이 된다. 만약 국힘이 없어지고 민주당만 남는다면 정치는 민주당의 소유물이 될 것이고, 일당독재가 시작된다. 친여 성향의 야당이 존재한다 해도 권력을 나눠가지는 비민주적 과두 체제일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다름과 차이, 갈등은 없애야 할 질병이 아니라 민주정치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재료들이다. 민주주의자는 갈등 속에서 일하며 갈등을 줄이고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신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지 함부로 말하고 성마르게 행동하는 혐오 유발자가 아니다. 정치는 상대적이다. 국힘이 없다면 정 대표는 누구와 정치를 할 것인가. ☐

기업경영 옥죄는 ‘反기업 3법’ 강행 시끌

경제 포커스

민주당 급속 추진에 기업들 심각한 충격



조희곤

본지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여당의 상법, 노란봉투법, 법인세법 등 이른바 ‘반기업 3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기업 3법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후유증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보다는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과 기업의 해외 이전,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 지배구조 변화와 주주권리 강화가 상법 개정의 핵심

상법 개정안의 경우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주주권리 강화다. 지배구조 변화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결권을 3%로 제한하는 속칭 ‘3%룰’이다. 2차 상법 개정안에 더해 앞서 통과된 이 ‘3%룰’까지 적용되면 최대 주주가 이사회 구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며, 외국의 투기 자본이 들어와 얼마든지 이사회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게 야권과 재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최대 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영권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로, 이사회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3%룰을 두고는 재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이 엇갈린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이는 해외에도 없는 규제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빠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룰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제도”라며 “이는 한국적 특수 상황에 맞춰 설계된 제도이지, 외국 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염두에 둔 듯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있었지만, 개정안은 ‘회

사 및 주주 전체에 대한’ 충실 의무로 확대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의 배경에는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빈번한 쟁의 등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도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최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서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업은 다단계로 협업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경쟁력이 저해될 것이란 주장이다. 고용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졸속 처리하려는 듯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연간 4조3000억 원 추가 세수 확보로 초 혁신 기술투자 한다지만…

법인세 인상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 하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여기에 부자 감세 등의 여파로 감소된 세수도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3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초 혁신 기술 분야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권과 진보진영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감세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실효세율이 여전히 낮아 기업

공감하지만, 일부는 경기 상황과 시장 충격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좀 더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한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요 경제단체와 만나 반기업법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 기조에 맞서 반기업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돌입,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더 센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불사할전 태세다.

기업은 국부 창출의 일등 공신…기업 살리는 길 고민해야

기업이 어려워지면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국가·사회·가정 모두가 힘들어진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 국부를 이루어 내는 일등공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것도 노사가 협력해 이룩

노란봉투법 통과로 재계, 기업 경영 위축 우려 법인세 인상은 자본시장 이탈 가능성 높아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협력사가 1차만 해도 237개 사에 달하고, 2·3차까지 포함하면 무려 5000여개 사나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파업에 나선다면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 마비현상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주식시장에서 들린다.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까지 나서 한국 내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반응은 냉담한 듯하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 법안을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하청·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연내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트럼프 발 관세 위협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부담을 키우고, 투자·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도 증세 카드를 꺼내는 것은 ‘정책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세율 인상은 고스란히 한국경제의 신인도 하락과 자본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물론 다수 의원들은 세수 정상화 필요성에

한 피와 땀의 결과다. 우리 기업, 특히 삼성과 SK, 현대, 한화 등 대기업들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적극 도와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했다. 정부 대표단과 함께 관세 협상에 참여,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협상카드로 내세워 ‘관세 15%’를 따내는데 큰 공을 세운 이른바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더욱 위대하게) 당사자가 바로 이들 기업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반기업법으로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무엇이 기업을 살리는 길인지 고민하기보다 너무 한쪽만 보며 옥죄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아 안타깝다.☞

신뢰없는 남북관계서 ‘일방적 구애’

이재명 정부는 북한 김여정 하명정부인가?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이재명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조금 하게 대북유화정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신뢰 없는 남북관계에서 일방적 구애의 대북유화정책은 잘못하면 안보에 구멍을 내고 대북정책 기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하자마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켰고 1주일만인 11일에는 직접 지시로 최전방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다. 국가정보원은 대북라디오·TV방송 송출을 중단시켰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으름장 말 한마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덩다고 9월로 연기했다.

김여정은 7월 28일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연습”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수선을 떨어도 조한(북남)관계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꾼 역사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또 “한·미 동맹을 맹신하고 우리와 대결을 기도하는 것은 선임자(윤석열)와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고 반응은 싸늘했다. 남한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북한은 동족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북한의 고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인 29일 “한·미연합군사 훈련 축소연기론을 대통령실에 건의하겠다”면서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북인권보고서 중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시절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말하자 문 정부는 허겁지겁 법을 만들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판결을



전방부대 장병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합참 제공>

시아에 참전시켜 전투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 군사력이 세계상위권에 있다고 하지만 군대는 45만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북한은 12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도 한국군은 북한군의 10분의 1일도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를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데탕트 시대가 아니다. 제국주의 부활의 시대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약육강식의 시대다. 소련연방의 한 울타리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털어버리자 러시아는 침략해 남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 무역질서를 흔들 뿐만 아니라 이웃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간 ‘강대강’ 대결과 태평양 해양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북한, 남한 주적이라는데 유화정책만 제시 대북 억지력 힘 길러야 남북관계도 정상화

내렸지만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든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교훈을 잊고 반복된다면 그 역사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된다.

이재명 정부의 친북유화정책의 일단 제시에도 북한 김여정은 기고만장이다. 8월 14일 담화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중단에 호응해 대남확성기를 철거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했다. 김여정은 또 “이번 기회에 한국이 우리가 남부국경선에 설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하였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최근 저들이 취하고 있는 그 무슨 ‘선의적 조치’와 ‘유화정책’이 호응을 받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조한관계가 복원이라도 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조성해 보려고 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자기들이 먼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우리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 철거와 같은 상호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개했다.

김여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관은 군부의 발표를 받아들이고 한국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라는 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화답조치’라느니, ‘변화감지’라느니, ‘긍정호응’이라느니 하는 평을 달고 있다.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고 한국을 조롱까지 했다.

우리의 대북유화정책을 사정없이 폄훼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8월14일 담화에서 “앞으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반대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남북신뢰가 깨지고 정상통로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을 주적으로 삼으며 마주할 의사가 없다는데 남한의 일방적인 구애로 남북관계가 정상화, 안정화 되겠는가.

더욱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발사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러

대립한 동북아 정세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미군사동맹이 단단하다고 하지만 미국은 대만 지키기에 관심을 쏟고 있고 일본, 필리핀, 호주와 연대하여 중국견제 방어망 틀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연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잘못하면 한국만 동북아에서 안보에 외로운 섬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대북유화정책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방위력을 강화할 때다. 지금처럼 신뢰가 없는 남북관계에서는 대북억지력의 힘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정상화, 안정화된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차관은 8월14일 싱가포르 아세안안보회의에서 “전쟁의 교훈은 명백하다. 평화주의는 답이 아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 유지된다”고 했다. 우리는 1950년 북한의 6·25 남침을 경험한 나라다.

국가 안보는 영광스러운 것이든 치사한 것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합당한 것이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국가기념일 제정 ‘물거품’

종북좌파들, 대한민국 구출 맥아더 죽이기 앞장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국내 종북반미 좌파세력들이 75년 전 9·15인천상륙작전으로 멸망직전의 대한민국을 구출한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을 ‘침략군(점령군)사령관’, ‘통일해방꾼’, ‘분단의 집달리’, 등으로 증오·저주·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상륙작전의 국가기념일 제정이 끝내 무산됐다. 인천시는 9·15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이를 국가공식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해 정부에 신청했으나 이재명 정부들어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지난 8월 17일 자로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거부 이유에 대해 인천상륙작전 외에도 낙동강 방어선 전투, 춘천지구 전투 등이 6·25전쟁 3대 전투로 꼽히는 만큼 특정 전투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75년전인 1950년 9월 15일 미명을 기해 미군 주도의 작전 명 ‘크로마이트(Chromite)’로 단행된 유엔군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대한민국을 멸망 직전의 위기에서 구출한 역사적 사건이다. 북한의 불법남침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결의에 따라 단행된 이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것으로,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261척과 국군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8개국 유엔군 7만 5000여명이 투입됐다. 인천에 상륙한 연합군은 경인(京仁)가도를 따라 서울로 진격해 북한군을 격멸하고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완전 탈환(중앙청 옥상 태극기 게양은 27일)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켰다.

당시 미 군사전문가들과 해군은 인천항의 간만의 차가 평균 7m로, 상륙하기 전에 월미도를 먼저 점령해야 하는 데다 선단의 접안지역이 좁고 상륙 후 시가전이 불가피한 점 등의 이유로 최악의 상륙조건 지형이라며



1950년 9월 15일 인천 월미도 앞바다 함상에서 망원경을 들고 상륙작전 상황을 지켜보며 작전지시를 하고있는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

완강히 반대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작전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며 극구 말렸지만, 맥아더는 이런 난점이 오히려 적의 허점을 찌르는 기습이 될 수 있다며 끝까지 상륙작전을 주장, 결국 미 합참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냈고 작전은 성공했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존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00여 개의 많은 신흥국이 외침(外侵)이나 내전, 이념분규로 멸망하거나 혼란에 빠진 것처럼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을 포함한 64개국, 북한측에 섰던 나라가 바르샤바 동맹국인 소련·폴란드·동독·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알바니아·체코슬로바키아 8개국과 중공 등 모두 9개국이다. 이는 6·25가 처음부터 엄격한 이데올로기 전이자 국제전이란 걸 의미한다. 특히 1950년 당시 세계 6대 강대국 중 독일을 제외한 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공 5대 강국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한국전쟁의 성격이 강대국들이 개입한 이데올로

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는 6·25전쟁 때 중공군 개입전망 오판 등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제(日帝)에 36년간 노예 살이 하던 나라를 해방시켰고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한 국가 멸망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한 그를 ‘분단과 학살의 원흉’ ‘전쟁광신자’ 등으로 내모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당시 맥아더 장군과 불화관계에 있었던 해리스. 트루먼 대통령까지도 맥아더 장군 해임 이유에 대해 “나는 그가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려해서 해임했지, 그가 멍청한 ‘개자식’이라서 해임한 게 아니다”(I fired him because he wouldn't respect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I didn't

한국전쟁 흐름 바꾼 역사적 사건을 매도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당시 유엔의 깃발아래 군대를 파견한 16개국 중 8개국 군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유엔사상 집단안전보장체제가 적용된 최초의 전쟁이며 또한 집단안전보체제가 성공한 전무후무한 사례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뿐인가. 세계 역사상 유엔군의 성공적인 구성과 활동을 통해 약소국이 무력에 의해 함부로 병합되거나 정치체제를 강요받아서 안 된다는 원칙이 국제정치 무대에 정립됐으며 이 원칙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확인된 것이다.

6·25전쟁은 김일성,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毛澤東) 3자가 공모해 공산주의 영향력을 동북아에 확산하기 위해 일으킨 이데올로기 전쟁이자 유엔군의 즉각적인 참전에 맞서 중공 및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동맹군이 개입한 국제전이었다. 당시 유엔가입 회원국이 93개국인데 6·25전쟁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나라가 72개국이다. 대한민국 측에 섰던 나라가

기 전쟁이자 국제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래서 ‘작은 세계대전(a little World War)’으로까지 불린다.

인천상륙작전의 의미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세력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를 거치면서 맥아더를 ‘침략과 학살의 원흉’, ‘극악무도한 살인마’, ‘분단 고착의 근원’, ‘38선 분단 집행의 집달리’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6·25전쟁을 북한의 주장처럼 ‘내전’, ‘조국해방전쟁’, ‘통일전쟁’,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 간의 전쟁’ 등으로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지킨 세력을 민족반역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미국 등 우방국들을 내전에 개입한 ‘제국주의’ 세력으로 매도한다.

이들은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6·25전쟁에 개입함으로써 희생을 키웠고,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통일을 방해했다며 원통해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침략-전쟁-살육-약탈’을 벌여 온 ‘만악의 근원’(the root of all evil)이라고 규정하면서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은 미국

fire him because he was a dumb son of a bitch.)라고 말했을 정도다. 군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널리 인정한 것이다.

6·25에 대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등의 ‘내전’ 또는 ‘쌍방과실론’, ‘통일전쟁’ 주장, 해방과 함께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에 대한 이재명의 점령군 주장은 유엔결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유엔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5일 당일(현지시각)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 한국전이 ‘내전(civil war/internal war)’이라는 소련 등 일각의 주장을 거부하고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무력공격(the armed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즉 남침(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평화 파괴 행위(a breach of the peace)’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적대행위 즉각 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제82호’를 채택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 제84호를 통해 한국전 참전을 위한 16개국 유엔군의 창설을 결의했다.☞

대한연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③

韓·美 ‘군사동맹’은 평화의 수호신

이승만이 말했듯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오는 구원의 생명선이 되었다.

첫째, 새우와 고래의 ‘군사동맹’은 평화의 수호신이다.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이 사라졌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전쟁에 시달리던 한국은 지금 70여년간 중국과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이 핵공세까지 막아주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둘째, 이승만의 한·미동맹은 그의 ‘외교독립론’이 목표로 했던 ‘가치동맹’의 성공작이다.

고종이 자신의 나라를 일본 천황에게 ‘양여’했던 경술국치 이래, 이승만은 감옥에서 ‘기독교 외교’로 독립을 쟁취하는 ‘외교독립론’을 구상한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은 모두 기독교국가였기 때문이다.



33) 한·미동맹 ③

중국과 러시아를 격파한 군사강국 일본을 맨손의 한국이 무슨 수로 물리칠 수 있었는가. 의병이나 폭탄테러로 나라를 찾겠다는 무장투쟁론자들이 만주로 상하이로 헤매 때, 이승만은 세계지도를 펴놓고 ‘기독교 세력의 리더’ 미국을 이용하자는 용미(用美) 방법을 결심하고 유학가서 연구한 것이 프린스턴대 박사논문이었다. 그 열매가 기독교자유세력을 묶은 한·미동맹으로서 자유의 적 공산주의와 일본의 침략을 영구히 막아내는 철벽을 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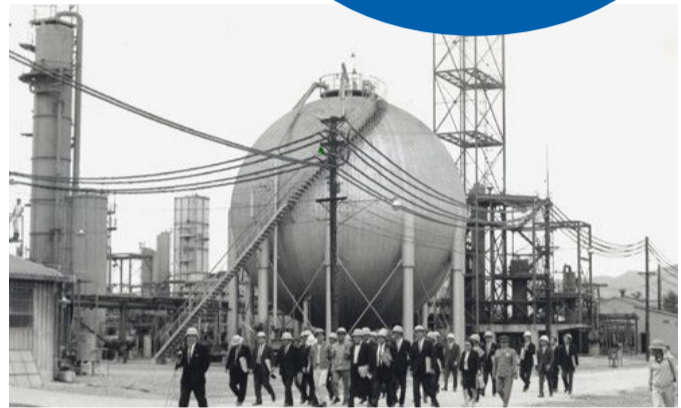
셋째, 군사동맹 한·미동맹은 한국을 무력에서도 군사강국으로 키워주었다.

이승만이 건국직후부터 “한·미동맹 맺자, 무기를 달라, 국군을 증강하겠다”고 졸랐으나 미국은 들은체도 않고 철수해버려 6.25가 터졌다. 그러나 한·미동맹 이후 구축해놓은 거액의 원조체제와 기술협력체제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군사기술까지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넷째, 한·미동맹의 협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목표를 실천한 일이다. 20대 청년 이승만의 꿈은 “미국과 동등한 나라” 만들기([독립정신] 참조), 전쟁중에도 “MIT 같은 대학을 세우자”는 교육대통령 이승만의 인재양성 열정은 기술인력을 위한 인하대학교, 외교통상 인력을 키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설립하고, 동시에 각분야 유학생들을 1만명 가까이 미국으로 파송하였다. 특히 학교엔 교목(敎牧), 군부대엔 군목(軍牧), 교도소엔 형목(刑牧) 배치를 의무화, 국민의 의식수준을 구미의 ‘기독교 자유민’과 같은 ‘글로벌 시민정신’으로 훈련시켰다. 모든 교육프로젝트들이 한·미동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승만 대통령(오른쪽)이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 타스카(Henry J. Tasca, 가운데)를 접견, 경무대에서 미국의 빛나간 원조정책을 두고 격렬한 협상을 벌여야 했다.



▲충주비료공장의 완공된 모습.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농민에 절대 필요한 비료공장 건설을 추진중 6·25로 중단, 휴전후 1955년 착공하여 1959년 완공하였으나 미국건설사와 분규로 비료 생산은 1961년 박정희 정권때 시작된다.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한원조는 동전의 앞뒤나 마찬가지로이다.

공식방미후 본격화된 한·미원조협상에서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미국을 군사동맹과 가치동맹 및 경제동맹으로 꿰뚫어버린 이승만의 전략이다. 이런 일방적 욕심쟁이가 따로 없다. 미군을 휴전선 바로 아래 최전방에 주둔시킴으로써 인계철선(引繼

직 대통령 트루먼이 보다못해 “아이크가 그 날강도에게 또 당했군”하며 혀를 찼을까.

◆문제는 미국의 원조정책 기조를 두고 또 폭발한다.

미국이 원조금액 사용조건을 4개나 붙였기 때문이다. 그 핵심이 ‘일본 중심주의’였다.

“이런 원조 안 받겠다. 한국인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이승만이 정면으로 팔을 걷어붙인다.

원조금액은 약 30억달러, 거의 무상이다. 구호품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진다. 이 돈으로 이승만의 광범위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다. 전후복구는 벌써 끝났고 “발전 성장단계로 돌입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온 것이 1958년이였다. 수입대체 생산공장들의 건설, 철도-도로개설 등 인프라 확충, 발전소 신증설, 원자력까지 개발 착수, 인재양성 등이 눈부실 정도인데, 공들인 ‘농민의 쌀’ 충주 비료공장

“한국은 미국 지켜주는 보루...대한 원조는 당연” 인재양성 교육 프로젝트...경제발전 밑거름

鐵線, tripwire)의 부비트랩 역할을 맡기는 데에 합의를 받아내어, 북한 침공시 ‘미군 자동개입’을 보장받은 이승만은 한국군 20개사단 증강 군사원조금액을 최대한 높이고, 경제부흥원조를 극대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이 내말 안듣고 철수해서 전쟁 났으니 미국이 한국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원조를 구하면서 당당하게 들이대는 약소국 대통령의 그 명분, 당시 국가 예산의 70%를 넘나드는 미국 원조액은 이렇게 확보한 것이였다.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다니는 미국이 되었다. 오죽하면 퇴

왜? “구매할 물건은 일본시장에서만”이란 조건, 일본 기업들만 살판 나지 않았는가.

“한국을 위한 원조를 하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자유를 지켜주는 최전방 보루 아니냐?”

미국을 이용할 줄 아는 국제전략가 이승만은 냉전세계의 국제역학을 미국보다 먼저 보고 최대한 국가이익을 확보하려는 대통령이다. 게다가 이 참에 미국 달러로 자본주의 종자돈을 마련, 전후복구에서 나아가 국가경제를 자립경제 체제를 갖추는 투자를 본격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4·19 자진하야까지 미국이 제공한

을 완공했으나 미국건설사와 분규로 미처 가동하지 못한 일이 안타까웠다.

◆자유와 평화의 보호막 한·미동맹 & 대규모 원조체제 구축.

이승만은 ‘외교의 귀신’이란 별명답게 ‘용미론’을 심분 발휘하여 자립경제 기반을 다져놓았다. 이어받은 정권, 민주당과 박정희 정부까지 미국이 제공한 원조는 차관까지 합치면 80억 달러에 이른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구축한 자유민주공화국 기반을 망가뜨리는 민주당정권, 세월이 길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역사가 고맙다.☞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뉴데일리 회장)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부 2기인가?

좌파, 줄세우기 인선 - 조국 사면에 경고 등



박석흥
본지 논설위원장
전 문화일보 국장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두 달여 만에 폭락했다. 리얼미터 8월 2주차(11~14일)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주 전보다 12.2%포인트 떨어졌으며, '이재명 부정 평가'는 13.1%포인트 올랐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이재명 정부를 불신하는 1차 경고로써, 체제전복세력의 유사전체주의 체제변혁에 급제동을 거는 빨간불로 보는 해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제변혁을 모색하는 헌법 개정과 대한민국의 주적 폐기까지 선언 했으나 국민 과반수에 못 미치는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의 한계를 취임 2개월여 만에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47.83%를 득표했으나 낙선했고 21대 대선에서도 '내란몰이' 구호를 내걸고 49.42% 득표로 당선은 됐으나,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재명후보의 대통령 선출에 동의하지 않았던 50% 국민 가운데 새정부 출범 후 지지자로 돌아섰던 많은 사람이 8월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대통령의 정통성에 동의하지 않는 50% 국민의 실존을 무시한 이재명 정권의 오만·무지·편견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경고를 더불어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원로들은 조언한다.

대통령 지지율 폭락을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대통령 지지의 추락만이 아니고 586(2020년대 50대·1980년대 대학생·1960년대 출생) 운동권이 그려온 체제전복전과 종북사회주의 통일이 남가일몽(南柯一夢)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핵심세력에게도 충격을 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급락을 언론계·학계·정치계 원로들은 이재명 정권이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혁명>과 <환상적 평화 통일>을 서둘러 복원하려고 한 오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5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세 특검으로 직전대통령 적폐몰이에 나선 이재명 정부는 <대북유화 정책>·<3단계 비핵화론>·<헌법 개정>·<검찰·사법개혁>·<공영방송체제 개편>·<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노란봉투법 제정>등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책들을 긴급과제로 선택 추진했고, 반미대열에 앞장섰던 문

통령다운 인선이긴 하지만, 심사숙고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일 조문 방북을 신청했던 민노총 전위원장을 노동부장으로 임명 한데 이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전교조 부위원장 출신 세종시교육감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해 교육계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

호송차로 이송하기 위해 모아놓은 듯하다"면서 2025년 8·15특별사면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맹폭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면에 여야가 함께 공분하는 것은 그가 입시비리사범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혁명론과 환상적 평화 통일론 등 실패한 정책을 기획했던 인물이었기 때

'위험한 혁명' '환상적 평화' 오판...지지율 추락

재인 사람들을 새 정부 요직에 기용하고 사법제재를 받았던 문재인 사람들을 서둘러 사면했다.

출범 초기 이재명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이념은 안보이고 '문재인 정부 2기'로 착각케 하는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원로 정치인의 쓴소리도 들린다. 이재명 새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검증없이 서둘러 복원되고 내각과 정당의 주요 보직에 좌편향 인사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대거 진출이 지지율 급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는 정치학자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과 '공정'을 강조했다지만 정작 정책을 추진할 내각과 당 주요보직 담당자 인선은 문재인 사람들·민주노총·전교조·민변·우리법연구회·반미 반체제 세력인사들을 기용해서 통합·공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재명 형사사건 변호인 7명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용과 미국 문화원·미대사관저 습격 전과자를 정부 요직과 당대표로 구성 한 것은 이재명 대

하고 있다.

최고진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성추행 비리가 있었던 안희정 지사와 박원순 시장을 변호하는 글과 천안함 음모론에 공감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의견을 실은 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배포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날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돌출 인물로 교육행정을 책임질 사람은 못된다는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와 부적절한 8·15 광복절 사면으로 사회여론에 공분의 불을 질렀다. 전체 형기의 33%밖에 채우지 않은 조국과 집행유예 2년6개월 형량이 남아 있는 윤미향에 대한 사면은 많은 국민이 반대한 잘못된 결정이었다. 8월11일 사면·복권된 조국 정경심 최강욱 노환중 백원우 윤미향 윤건영 김은경 조희연 은수미 신미숙 등 19명은 국민의 지탄을 받은 문재인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은 8·15 특별 사면 명단을 보며 "부부입시비리단, 파렴치범, 뇌물수수범, 권력 비리범을 교도소 한

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며 9·19 남북 군사합의도 선제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일의 '스물달'과 유사한 3단계 비핵화론을 제시했으며, 이재명정부 국정원은 대북방송을 중단했고 통일부 명칭변경까지 검토중이다. 이재명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환상적 통일론'을 열심히 복원했으나 북한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을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반박하고 "리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폄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졸속 복원도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한 요인이었던 것 같다.☞

새마을운동 제창...농촌경제 성장 모범국

대한연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②



좌승희 박사

아주대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문제는 박정희 개발정책이나 전략이 기존 주류 사상에 비춰 잘못됐다고는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룬 '유례없는 고속 동반 성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과상적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을 특혜라고 규정하거나 대기업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독점을 초래하리라고 인식하고, 이런 정부의 시장개입은 반시장적이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규정한다. 물론 때때로 부분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추론에 반하는 박정희 시대의 동반 성장 기적에 대해서는 좌과 경제학계나 주류 시장 중심의 경제학계나 모두 관심이 없어 보인다.

궁색하면 독재가 문제였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견강부회(牽強附會)에 불과하다. 왜냐면 박정희시대 한국은 국가다운 규모로서 20세기 후반 독재를 하고도 동반 성장에 성공한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또한 더 크게는 20세기 후반에 민주주의 해서 경제 도약에 성공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히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성공 기적중의 하나라고 해외전수에 돈과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 박정희 기적이 재현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 박정희는 개별 독농가(篤農家) 육성에 의존했던 농가 소득 증대사업이 농촌 사회간접자본의 부실과 농업경영정보 부족 등에 따른 농어촌 '시장실패' 현상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새로운 사상과 정책으로 마을 단위의 협동작업을 활성화하는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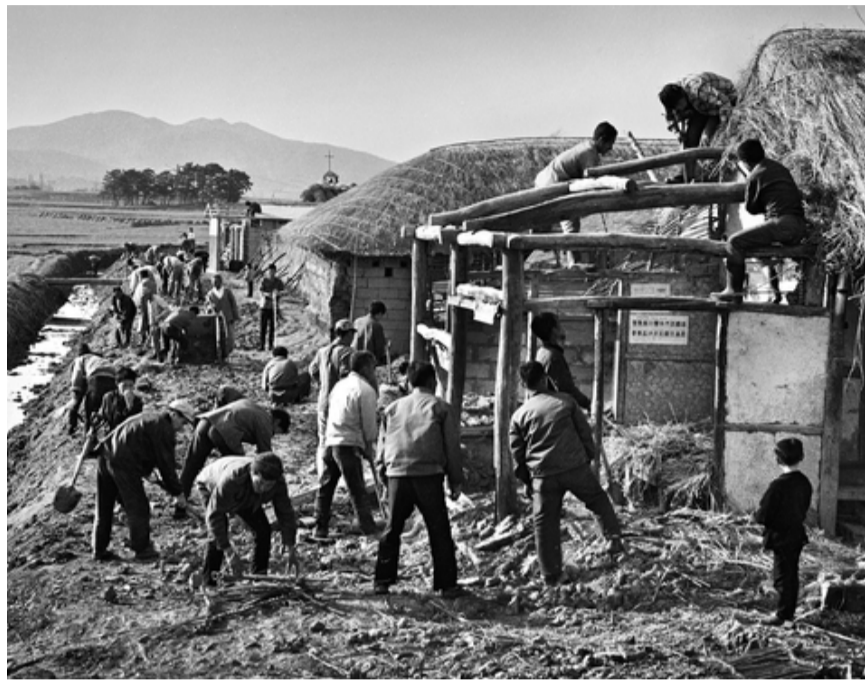
그런데 그동안 새마을운동 해외전수 사업은 '박정희의 독재가 싫다' 박정희를 빼고 바로 그가 버린 시장 중심의 개별 농가 육성 모델로 바뀌어 전수하고 있으니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언필칭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도 아직껏 박정희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정책화하지 못하고 있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등 세계 경제개발계획들이 성공한 사례도 별로 없다.

도대체 박정희는 왜 전통 주류 경제사상과는 다른 정책을 국내외 경제학계, 때로는 측근 참모와 각료들, 나아가 강고한 야당의 반대를 꺾고 심지어 유신까지 하면서 밀고 나갔으며, 결국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 연재는 박정희가 무엇을 했다는 성과에 대한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 성과를 성취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박정희의 성공이나 혹은 실패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고 그의 성공을 정책화할 수도 없



새마을운동, 전북 고창, 1972년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새마을운동 발생지기념관.

1970년 4월 마을단위 중심 협동작업 활성화 자본주의, 장기 저성장-분배 양극화에 직면

복지 국가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전후 회복기의 성장 시대를 거친 후, 60년대 이후는 성장과 분배의 악화를 경험하면서 오늘날에는 재분배복지 국가의 이상과는 정반대되는 장기 저성장-분배 양극화에 직면하고 있다.

평등한 경제를 목표로 했던 공산권도 극도의 실패에 직면한 북한만을 남기고 90년대에 모두 몰락하였다. 그리고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교수는 이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으로 통일되어 이념전쟁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인류가 희구한 평등하고 균형된 동반 성장의 꿈은 사라지고 저성장·양극화가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민주주의에 무엇이 문제인가? ㉠

고 그의 사상을 세계에 전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세계 민주·시장경제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의 경험〉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진영은 평등한 경제를 지향하는 공산·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쟁 속에서 균형된 재분배

특파원 수첩 런던 ⑤

‘섹스 스캔들’에 무너진 세기의 결혼식

英 앤드루 왕자 6년만에 파경... 명예 잃고 은둔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직면해 있다. 마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로 대표되는 탄탄한 지지 층의 환호 속에서 초강경 관세와 이민 추방 등 보수주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편 세계 곳곳의 분쟁 조정에서 나서는 노벨평화상을 노리고 있지만, ‘엡스타인 파일’이란 정치적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전전긍긍이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성 착취 범, 제프리 엡스타인이 미성년자와의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록. 뉴욕 월가의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수천억 대의 재산을 모으는 동안에 10여 년에 걸쳐 전 세계 정·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일삼으며 명성을 날리면서 재산을 축적했으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 행적이 드러나자 구치소에서 자살, 생을 마감했다.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한 세력에 의한 타살이란 설도 심심찮다. 그에게 미성년 모델을 공급해 왔던 프랑스 패션모델 에이전트, 장 브루넬도 파리 교도소에서 ‘자살’로 발표되었다. 어디에나 범죄를 감추려는 권력자들의 검은 손은 뻗치게 마련이다.

관련자들의 잇단 ‘자살’과 함구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엡스타인 리스트’에 내로라 하는 수많은 거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빌 게이츠, 앤드루 왕자, 배우이자 연예인, 크리스 터커, 케빈 스페이시 등등. 그중에서 앤드루 왕자는 ‘빠박’증거가 나와 도망갈 길이 없게 되었다. 성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인(버지니아 주프레이)이 자기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엡스타인의 만행과 왕자와 놀아난 얘기, 사진 등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이다. 17세 때 마라라고 리조트(트럼프 별장)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2000년 엡스타인의



情婦, 길레인 맥스웰로부터 엡스타인의 안마사 제안을 받고 이직했고 그 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 왕자를 비롯한 각국 주요 인사들과 강제로 성 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앤드루 왕자는 관련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2년 2월 주프레이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사건의 미공개에 합의했다.

그로 인해 앤드루 왕자는 영국 버킹엄궁과의 인연을 끊고 모든 왕실 활동과 해군 직위를 내려놓고 윈저궁에서도 퇴거당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러하듯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한때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사라

지 이르는 2Km의 거리 양편에는 100만 인파가 몰려들어 <유니온 잭>을 마구 흔들며대면서 ‘앤드루’, ‘사라’를 목청이 터져라 외쳐댔다. 현장에 가지 않은 영국인들은 새벽부터 TV 중계를 지켜보면서 왕위 승계 4번째 순위인 앤드루의 새 출발을 한 없이 축복했다. 인파들은 하루 전날 아침부터 슬리핑백에 이부자리와 세끼 음식까지 장만해 가지고 나와 목이 좋은 자리에 진을 치면서 이날의 세기적인 결혼식 퍼레이드를 기다렸다. 매년 연말 세일 시작 며칠 전부터 정문 앞에 장사진을 치는 해룻백화점의 극성과 고객을 뺄 정도.

천년 역사를 지닌 웨스트민스터사

구가 시청했다는 추계는 바로 이날의 결혼식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결혼식에는 벨기에, 스페인, 모나코, 룩셈부르크,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왕자들이 대거 참석, 마치 왕자님들의 잔치가 된 느낌이다. 4,000명이 넘는 각국 기자들의 취재 경쟁 속에 본 특파원이 동양기자로서는 유일하게 좌석이 결혼식장 안에 초대되어 세기의 결혼식 광경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요,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결혼식장에 오갈 때 동원된 마차는 그야말로 전통과 품격의 극치.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신랑의 마차는 1902년에 만들어진 고색창연한 어가(御駕)이고, 두 마리의 적갈색 말이 이끄는 신부의 마차는 1910년에 제작된 조지5세가 즉위할 때 쓰던 유리 마차. 다이애나를 비롯, 왕실 가족들의 결혼 때마다 타고 가던 것. 신데렐라 공주가 탔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신랑 신부의 행렬은 버킹엄 궁 앞에 곧장 뻗은 큰 길, 더 몰가를 지나 트라팔가 광장을 거쳐 웨스트민스터에 이르렀는데 행렬의 전후에는 200마리의 말이 정복을 입은 기마병에 의해 배치되고 길가 양쪽으로는 1m

‘엡스타인 리스트’에 트럼프도 전전긍긍

퍼거슨과의 결혼은 그 피크. 동화에 나오는 왕자님의 결혼식이 이보다 더 화려했을까. 그것은 곧 ‘신데렐라’ 공주님의 결혼 장면이 현실에 재연된 것이었다. 찰스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26)와 동갑내기 약혼녀 사라 퍼거슨의 결혼식이 거행된 런던은 마치 동화 속의 도시였고 식이 거행된 웨스트민스터사원은 신비의 궁전이였다.

거리엔 100만 인파, 6억 명이 TV 시청 슬리핑 백에 세끼 음식 준비, 밤 새워 대기

그 날은 또 하나의 축제일. 식이 올려진 1986년 7월23일 영국 전역은 온통 흥분의 도가니에 싸여있었다. 결혼식을 전후하여 퍼레이드를 벌인 버킹엄 궁으로부터 웨스트민스터사원까

원에서 왕실 가족이 결혼식을 올린 것은 지난 1,100년 헨리 1세에 이후 이번 앤드루가 14번째. 1066년 윌리엄 왕을 비롯하여 모두 37명의 왕이 즉위식을 올리고 18명의 왕과 14명의 여왕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고 엘리자베스2세 여왕도 백년가약을 맺은 곳. 다만 5년 전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스펜서의 결혼식은 찰스가 왕위 승계자라는 점을 고려, 보다 많은 외국 귀빈과 하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인트 폴성당에서 거행되었다.

200마리 말 속에 나타난 유리 마차 <세기의 축제>에 유일하게 초청 받는 영광이

영국 왕실 결혼에 대한 관심은 영국 민뿐만이 아니었다. 결혼식 장면이 전 세계 39개국에 동시 중계되어 6억 인

간격으로 빨간 저고리와 검은 바지, 검은 털모자를 쓴 왕실 근위병들이 ‘앞에 총’을 하고 눈동자 한번 움직이지 않는 부동자세로 도열했다.

그러나 그들의 허니문도 겨우 6년 만에 파경, 별거 하더니 결국 헤어졌다. 그 사이 퍼거슨도 미국 실업가 존 브라이언 등과 애정행각을 벌이며 서로 경쟁하듯 바람을 피우더니 연륜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인지 요즘은 ‘좋은 친구관계’라며 한 지붕 밑에서 서로 의지하며 만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앤드루가 모든 대외 활동을 중지하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대통령 출마 당시에는 문제의 파일을 즉각 공개하겠다고 공약하던 트럼프는 당선되자 미적대며 유체가 탈만 되풀이하고 있다. ☞

‘방송3법’ 국회통과…언론계 앞길 감감

지배구조 바뀐 공영방송, 여권 주변단체 잔칫상 되나?



전의식
본지 편집위원

민주당은 만능 정당인가. 당지도부가 결심하면 무슨 법안이든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요술 방망이로 보인다. 국회의원 166명을 거느린 거대 여당은 헌법 사항을 제외한 법률안 제·개정에는 필요한 머릿수를 동원하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인다.

지난달 8월 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전날,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요즘 ‘국민에게도 외면받는다’는 국민의 힘은 오후 4시께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방송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재빨리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에 무기명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이후 개정안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1명 중 찬성 178표를 받아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또 민주당은 8월 21일에 소집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MBC관계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통과시켰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튿날 처리해 방송 3법 개정 작업을 모두 끝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전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몇 달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의 ‘1호 개혁법안’으로 불리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와 MBC, EBS의 대규모 개혁을 겨냥하고 만든 것이라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 개정된 방송 3법은 우선 공영방송 이사회의 추천구조를 크게 바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둘째는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고 세 번째는 방송 보도 부문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뼈대가 짜여있다.

지난 방송법에선 KBS 이사는 11명(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이 정원이었으나 새로 개정된 법안은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게 했다. 새로운 이



(서울=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일부를 제외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도 “개정 법안 중에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 국민위원회 의무 설치 조항은 방송사 편성권과 인사권을 노조 등 여권 세력이 좌지우지하도록 만든 제도”라며 비난해 왔다.

이런 논란이 아니더라도 방송사와 언론계 일각에선 방송3법 개정이 민노총을 위한 여권의 배려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수년 전에 보도 현장을 떠난 한 언론인은 “우리 방송에도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프로그램 편성, 제작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편성 규약 개정과 편성책임자 선임에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고 이사 선임과 사장 추천에도 노조의 영향력이 늘어나면 그들만 좋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방송장악 시도 명백한 악법” 반발 언론계 “민노총을 위한 여권의 배려” 쓴소리

사는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학회 2명, 변호사단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신설 조항에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가 들어 있는데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보도 전문 채널에도 적용된다. 또 KBS, MBC, EBS는 물론 연합뉴스TV, YTN도 보도 책임자의 임명은 해당사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도 법안 의결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과거 MBC의 대주주로 사장 임명과 해임권을 갖고 있고 경영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단체가 2명씩 각각 추천하도록 바뀌게 된다.

교육방송 EBS의 이사회도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1명, 방송미디어학회 1명, 교육 관련 단체 2명, 교육부장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으로 추천하

도록 배분되어 있다. 이러한 방송3법 개정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선 “지금까지 정치권에 휘둘러온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자찬하지만, 국민의 힘은 “국민을 빙자해 방송장악을 시도하려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크게 반발해 방송3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 같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규연 홍보 소통 수석은 “앞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의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송 언론인 출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동지들이 눈물로 지켜낸 공영방송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민주당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방송장악이 완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땡전뉴스가 아닌 땡명뉴스도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법 개정에는 반대 시위를 벌여온 ‘민주노총 방송장악법저지 공동투쟁위원회’ 등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들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바뀐 방송3법은 내용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논란이 적지 않다. 야당과의 법률적 협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다급하게 상정한 점은 앞으로 정치적, 법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 법안의 핵심인 이사 수 확대, 추천권 다양화, 선임 방식 변경이 국내 언론 생태계에 미칠 파급력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야권의 주장처럼 이사부터 사장까지 여권과 주변 단체들이 입맛대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과연 공영방송 개혁인지 아니면 방송장악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지난달 8월 14일 민주당은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언론개혁의 첫발을 떼려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3개사에 대한 이사, 사장 교체 등의 개혁이 완성되면 다음에는 민방과 신문 등 각 언론사를 향해 언론 개혁이란 바람을 들이밀겠다는 신호인지 짚짚한 대목이다.☞

“서울 지하철안전관리 재원 마련에 온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인터뷰

올해는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다. 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돌보고 있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을 만나 지난 1년간 첫 여성의장으로의 감회와

- 지난 1년간 첫 여성의장으로서 1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돌보신 감회가 어떠신지요.

익숙해질수록 할 일이 더 잘 보이는 게 살림살이다. 시민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챙기는 서울시의회 의장의 일도 그렇다.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할 일이 늘어난다.

그만큼 지난 1년, 원도 한도 없이 일했다. 시민이 있는 곳이 의회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마음으로 서울 방방곡곡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의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 고통받는 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왔다. 그렇게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의회의 노력과 땀이 시민의 효용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람차다.

- 1년 전 인터뷰에서 “후반기 2년은 개혁의 씨앗이 시민 삶 속에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개혁이 열매 맺은 사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드린대로, 시민의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꼽을 수 있다. 기초학력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기본 인권의 배움의 기초체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해졌다. 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할 평가 도구 자체가 없었다. 결국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힘을 빌려 기초학력을 증정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먼저 팔을 걷었다. 제11대 의회가 출범 하자마자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위’를 구성, 서울교육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을 위한 예산·조례 확보, 진단도구 개발까지 전 과정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 취임하시면서 ‘민생 의정’을 특히 강조하셨는데 현재 서울시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복안 등에 관해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우선 의회’, ‘안전제일 의회’가 되겠다는 저의 각오는 지금도 변함없다. 아니 더욱 절실해졌고, 더욱 절박해졌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설 때 시민 누구나 ‘보통의 하루’라는 일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 지하철안전관리 조례 2건의 심사도 진행된다. 지난 정례회에서 도시계획 시 지하철 안전 여부를 함께 살피고 GPR 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공개를 의무화하는 서울 지하철안전관리 조례 3건을 처리했다면 이번에는 선제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이다.

-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물가가 크게 오르는데 걱정이 큼니다. 시장에 가면 5만원 갖고도 살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민생 물가는 중앙정부가 신경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밥상 물가가 비상이다. 심지어 지난

-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13조원을 전 국민을 상대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자체는 분분한 상태다.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돈 풀기 식 손쉬운 해법이 물가 인상을 촉발해 시민에게 더 큰 짐을 지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된 정부 정책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100%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지방에 청구서가 날아왔다. 심지어 서울시는 25% 부담이다. 서울시와 공동생활권으로, 서울시와 인구, 경제 규모는 비슷한데, 채무는 절반인 경기도도 10%만 부담하면 된다. 지방자치의 기



인터뷰에 응하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보다 나은 시의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서울시의회 전체를 대표하고, 여야를 중재해야 할 책임을 가진 서울시의회 의장이 된 지금, 그 목표는 여전히 여전하다. 싸우지 않는 의회, 함께 발전하는 의회가 되는 길은 하나다. 의장 뿐 아니라 111명 의원 모두가 빛나는 의회가 돼야 한다.

아동 기초학력 진단검사 의회서 선제적 추진 민생경제 회복에 정부·지자체 협의필요

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중 최고 인상폭(3.5%)을 기록했다. 울어름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농축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린데다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함께 갑작스레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 변동성이 더 커졌다.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지난달 말, 가락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수박, 복숭아 등 평년 대비 두 배 이상 가격이 오른 과일들의 신속한 수급 안정,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당장의 물가도 걱정이지만 다가올 김장철 대비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여름철 채소 작황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겨울 김장철 물가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본 원리에도 역행한다. 지방정부 공간이 바닥을 보인 상태에서, 이 예산을 어디서 구하나. 갑자기 수천억 예산을 마련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빚을 내서 예산을 충당하면 결국엔 다시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손쉬운 해법 대신,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로,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중앙정치는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수준으로 여야간 협치를 찾아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협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제 각오와 목표는 확고했다. 싸우지 않는 시의회,

- 1년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지금은 1년 후 지방선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1년 후의 일을 앞당겨 계획, 준비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다. 당장 내 앞에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해내야 할 무수히 많은 과제가 있다.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은 기념비적인 해에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았다. 그간 수 차례 무산됐던 지방의회법 제정,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뿐 아니라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의 독립을 이뤄낼 때 비로소 ‘강 시장, 약 의회’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장석영 본회 회장〉

평창 고랭지 배추밭서 ‘도민 속으로’ 현장 체험

100억 농업자금 방출로 ‘국민식탁’ 안정에 온힘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 인터뷰

강원도 평창 고랭지 배추밭에 강원 로고가 찍힌 흰 셔츠에 밀짚모자를 쓴 도시 농부가 나타났다. 그는 다름아닌 올해 도정 운영 방침인 ‘도민 속으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곱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였다.

지난달 25일 아침 7시 김 지사는 배추 이파리의 색깔과 크기 등을 살피고, 수확 적기인가 여부를 일일이 확인 한 뒤 농업인들과 함께 수확작업을 능숙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도시에선 아침 7시면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지만, 농촌에서의 7시는 농사일이 한창 진행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대개 5시나 6시부터 일과가 시작된다. 땀별 더위를 피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 고랭지 배추밭은 약 1만2000평에 달한다. 김 지사는 작업용 장갑과 팔 토시를 끼고, 허리를 구부린 채 배추포기를 살펴 나갔다. 배추 이파리의 색과 크기 등으로 수확적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칼로 배추 밑동을 자르고 걸 이파리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른 아침부터 체험해 본 결과 어떠십니까?

배추 농사는 재배부터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인데 막상해보니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강원 고랭지 배추가 전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고랭지 채소의 주(主) 산지인 강원도가 전 국민을 상대로 생산, 공급을 책임지는 만큼 경작 현황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7~8월에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 배



김진태지사가 밀짚모자를 쓰고 평창 고랭지 배추밭에서 일손을 돕고있다.

추와 무의 원산지가 90% 이상 강원도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폭우와 폭염에 취약해 해마다 생산량의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배추 가격이 오르면 김치 값은

-도에서는 농가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도에서는 이곳이 반복된 배추농사로 토양이 병충해 발생에 취약해졌다고 보고 토양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현장에 뛰어들어 그동안 도민들에게 무엇을 지원하고 풀어주었습니까?

“162건 규제완화 …도민 재산권 되찾았다” 강원도는 여름철 배추·무 90%이상 생산·출하

물론 밥상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 식탁에 오르는 여름 고랭지 배추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여름 배추 출하 목표량은 21만 8,500t으로 현재 5만t을 출하한 상태입니다.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작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해 농가 소득 안정에도 힘쓰고 있으니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올여름 폭우와 폭염이 예년보다 심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월 10일까지는 목표량을 조기 출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삼밭이 매년 인삼만 재배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서 밭을 갈아엎는다고 객토를 가져다 부어서 하는 복원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편으로 도는 100억 원 규모의 농업안정 자금을 적기에 방출해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올해 도정 운영방향인 ‘도민 속으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일곱 번째 현장행보라면서요?

가스 검침원 체험을 첫 번째로 선택한 이래 이번 농사일 체험이 벌써 일곱 번째가 됐습니다. 공보실에서 난 통계인데 취임 이후 3년간 지구 네 바퀴 길이에 해당하는 14만 4000km를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30km를 움직인 셈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장에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역시 현장을 가봐

2024년 강원특별법을 개정, 시행하여 환경·산림·농업·군사 분야 등에서 총 162건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축구장 1,818개 면적의 군사규제가 해제돼 강원도민의 통행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이 회복 되는데 일조했습니다.

우리를 움아매던 각종 규제를 풀어서 ‘감자의 고장’에서 반도체·바이오·수소 특화단지 등 7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했습니다.


또한 ‘육지 속의 섬’에서 이제는 사통팔달, 1시간이면 수도권을 오가는 ‘수도권 시대’에 편입됐습니다. 모두가 강원도민들의 숙원 사업들입니다. 인터뷰를 마친 김 지사는 이마의 땀을 수건으로 훔치면서 수확한 배추를 트럭에 싣는 작업을 계속했다.☞

정정 지난 8월호 20면 인천광역시 유정복시장 인터뷰기사에서 ‘인천직할시’는 ‘인천광역시’의 오키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사과 드립니다.

〈장석영 본회 회장〉

총 3건 가짜뉴스-불공정 보도 '언론의 책임'

**대한언론
공정보도심의위원회
10차 회의**



대한언론인회 공정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오전 대한언론인회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3건의 신문·방송 보도 내용을 불공정 보도로 선정해 그 내용을 '대한언론' 9월호에 보도기로 의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육식 위원 : ▲ JTBC가 가짜뉴스 보도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Fred Fleitz)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제가 JTBC 김혜미 기자에게 말한 답변 중 핵심 문장을 JTBC가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보도했다”며 “핵심 문장을 생략해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다. 다시는 JTBC와 거래(deal, ‘인터뷰’를 의미)하지 않겠다”는 글을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림으로써 비롯됐다.

플라이츠 AFPI 부소장은 지난 7월 30일 “JTBC는 제가 김혜미 기자에게 한 말을 분명히 잘못 전달했다”며 “김혜미 기자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 가운데 의도적으로 다음 문장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누락한 부분은 “However, reports that the former president is being mistreated during his current confinement and media reports that he could face the death penalty or life in prison are extremely concerning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구금 중에 학대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그가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다)”이다. 자신은 이와 같은 답변을 기자에게 했는데 막상 보도에서는 이러한 핵심 문장이 빠져, 말하고자 했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53분 쯤 <단독> 트럼프 측근 “윤 부당대우? 그런 말한 적 없다” 부인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측근들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와 가까운 미국 인사가 이걸 문제 삼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저희가 당사자에게 확인해봤더니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고 보도했다.

JTBC는 “플라이츠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자면,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며 “신평 변호사가 일부 언론 보도를

JTBC 美플라이츠 인터뷰 가짜뉴스 구설수 모경제신문 한국 방산주 평가 선부른 판단 말아야

인용해 ‘플라이츠 부소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대우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JTBC의 보도만 놓고 보면, 플라이츠 부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개인적 우려만 전달한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단독> 트럼프 측근 “윤 부당대우? 그런 말한 적 없다” 부인이라는 기사 제목은 앞서 ‘트럼프의 측근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 국내 보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 7월 28일 자신의 X에 “윤 전 대통령이 박해를 받거나 기소된다는 인식은 트럼프 정부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썼고, 이재명 정부의 ‘안보 수장’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직접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실공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유력 인사가 동맹국 한국의 ‘안보 수장’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을 단순한 ‘개인적 견해’로 치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국 6·3대선 미국 국제감시단의 일원이었던 고든 창 미국 변호사는 지난달 9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윤석열이 한국의 진짜 대통령이다. 이재명은 비합법적인 대통령이다(Yoon is the real president of Korea. Lee is the illegitimate one)”라고 썼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을 친중 정치인이라며 “차이나 리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China Lee is going down)”고 말하고 이 대통령을 뒤에서 받쳐주는 듯한 시진핑의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리트윗했다.

이어 한국계 미 공군장교 출신으로 현 이재명 정권에 비판적인 타라 오박사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이재명은 중국의 대리인처럼 통치한다. 그는 베이징의 에이전트(첩자)인가?(Lee Jae-myung rules like China’s proxy. Is he Beijing’s agent?)”라고 했다.

◆조희곤 위원 : 한 디지털 기반 경제신문은 주말인 8월8일 아침 ‘韓방산주 美록히드 마틴보다 최대 3배 고평가’란 제목의 기사를 다루었다. 올해 고공 행진한 우리나라 방산주가 고평가돼 외국인이 순매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신문은 그 근거로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다루는 지표 PER(주당 순이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 방산주는 올 들어 70~300%나 급등하면

서 PER이 적게는 32배(현대로템)에서 많게는 61배(한화시스템)나 돼 외국인들이 대거 ‘팔자’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특히 글로벌 최대 방산기업 미국의 록히드마틴의 PER(19.6) 보다 우리나라 방산주가 2~3배나 높은 수준이라며 주식 투자자들에게 방산주 ‘투자경보’를 내리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 기사가 나간 당일(8월8일) 국내 방산기업 주가는 LIG넥스원이 14.93%(종가기준)나 폭락하는 등 대부분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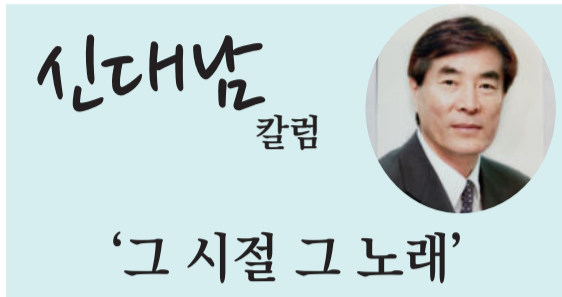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는 보통 애널리스트 등 주식 전문가들의 몫이다. 그런데 기자의 시각으로 어느 기업의 주가가 ‘싸다’, ‘비싸다’고 선불리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언론 보도와 반대 방향으로 투자해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속설까지 나오고 있는 배경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글로벌 10위의 무기수출 강국이다. 실제로 우리 방산 기업들의 폴란드 등 각국으로의 무기수출은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이에 무기수출 강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1400만 명이나 되는 주식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리 : 이규진 총괄부회장〉

‘K팝 여왕’ 이재, 예술인 뿌리깊다

신영균 회장의 외손녀... ‘골든’ 빌보드 차트 1위



〈8〉

그 할아버지에 그 손녀.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K팝 ‘골든’(Golden)의 가수 이재(EJAE)가 한국 영화의 큰 별, 신영균 회장(한주홀딩스 코리아 명예회장)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져 모처럼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의 노래 ‘골든’이 팝의 본토 미국의 빌보드 종합 싱글차트 ‘핫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의 1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K팝 초유의 전설을 쓰고 있다.

이재의 ‘골든’은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다. 이재는 ‘골든’을 노래한 가수이자 작사, 작곡까지 한 싱어송라이터다. 영화의 프로듀서로도 참여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의 토속 문화를 배경으로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와 4인조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가 경연을 벌이고 선과 악의 주인공으로 맞서는 스토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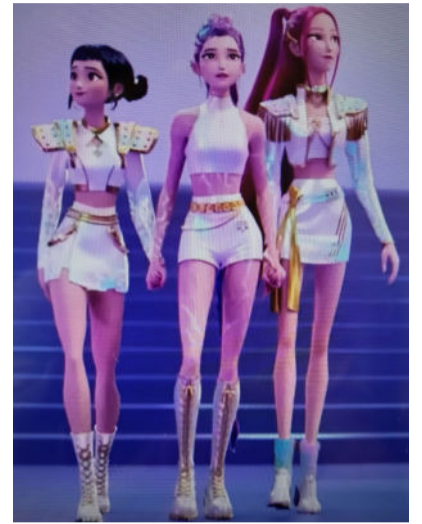
그동안, K팝의 빌보드 핫100 1위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버터’ ‘세븐’과 멤버 정국, 지민 등 방탄소년단의 노래만 8번이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아파트’로 3위에 올랐었다. 그리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1위는 사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이며, 이재의 ‘골든’이 2주 연속 1위에 오르는 충격적인 새기록을 세웠다. ‘골든’은 기존 K팝과 달리 소프트한 멜로디에 서정적인 꿈과 희망을 깊이 담고 있다. “...오, 지금은 우리의 시간 두려움도 거짓도 없어/ 어린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 너도 알잖아 어린 반듯이 황금이 될거야/ 어린 그렇게 될거야 빛나기 위해 태어난 존재/ 밝게 빛나는 우리, 이걸 우리의 시간/ 두려움도 거짓도 없이 어린 그렇게 태어났어.”

이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저 눈물이 난다.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영균 회장은 2011년 이재와 한 방송에 출연해 “외모도 체격도 좋고 노래도 소질이 있다. 열심히 하니 잘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때 이재는 “미국 뉴욕대를 다니고 있는데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노래, 안무, 악기의 실력을 쌓았다.

한국 K팝 최초의 걸그룹은 1953년 ‘목포의 눈물’의 가수 이난영이 납북된 기타 연주자 겸 작곡가였던 남편 김해송과 사이의 딸, 숙자(13), 애자(12)와 조카 민자(11)로 김시스터스를 만들었다. 어린 멤버들에게 가창, 안무, 악기까지 가르치고 영어 가사를 외우게 해 미 8군 쇼에 세웠다. 미국 공연 기획자



국내 방송에 출연해 노래하는 외손녀 이재를 신영균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재의 ‘골든’을 노래한 만화영화의 주인공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

톰 볼과 계약을 맺고 1959년 한국 가수 최초로 뉴욕에 진출했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롤링스톤스 등 스타들이 출연하는 ‘에드 쉐리번 쇼’에 22번이나 출연하며 ‘찰리브라운’, ‘김치 깎두기’로 인기를 얻었다. 1975년 해체하고 자매는 라스베이거스, 민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정착했다.

그리고 1964년 윤복희, 서미선, 김미자, 이정자의 4인조 걸그룹 코리아 키튼즈가 결성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주 활동무대로 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등을 돌며 유행 팝송과 모던 댄스, 모자 바퀴 쓰기 등의 안무로 인기를 얻고, 미국 유명 코미디언 밥 호프와 CBS TV특별 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1976



윤복희, 서미선의 코리아 키튼즈.

1964년 걸그룹 ‘코리아 키튼즈’ 美·유럽서 활약 아름다운 기억은 시간이 가도 추억으로 남아

년 해체 후 윤복희만 귀국하고 서미선 등은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했다. 반면, 남성 그룹은 1958년 블루벨스가 ‘열두냥짜리 인생’을 히트하면서, ‘빨간 마후라’의 자니브러더스, ‘꽃집 아가씨’의 봉봉 4중창단 등 4인조 중창단이 국내에서 붐을 이뤘다. 세월이 가고 방탄소년단의 K팝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신영균 회장이 한국 영화의 큰 별이라면, 외손녀 이재는 지금, K팝의 싱어송라이터로 세계를 흔드는 꿈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나는 신영균 회장에 대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연산군’ ‘빨간 마후라’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의 명연기로 인기 절정의 스타였던 1970년대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름 모를 풋내기 기자였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어떻게 만나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런데 웃으면서 “내일 우리 집에서 아침 같이 먹자. 집으로 와.”

집은 퇴계로 대한극장 뒤 필동이었던 것 같다. 잔디가 깔린 정원의 대 저택으로 기억된다. 테이블 식탁에 부인 김선희 여사가 손수 아침을 차렸다. 식사를 마치고 신회장도 출근을 한다며 같이 나오는데

신발을 신는 현관에서 신회장이 구두에 발을 넣으면 김 여사가 뒤축에 구두 주걱을 넣어 편하게 신겨 주었다. 잊히지 않는 기억이다. 김 여사는 화려하지 않고, 밝은 인상의 미인이었다. 식사 내내 말없이 챙겨주고 조용했다. 은은한 내조가 신영균 회장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을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쯤인지 90년대였는지, 종로 구 관훈동 18층 빌딩에 신영균 회장의 집무실이 있었다. 내 직장도 가까웠다. 가끔씩 전화가 와 만나면, 지금의 회장인 신연식 자제와 꼭 함께했다. 내가 느낀 신영균 회장은 스케일이 크지만 섬세하고 싱그럽고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 신연식 회장도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스스로없이 사무실로 찾아오고 겸손하고 다정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로서의 경영 능력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세계를 흔들고 있는 K팝 ‘골든’의 가수 이재의 엄마도 하피스트다. 어머니를 닮은 인상의 미인인데 딸 이재가 또 엄마를 닮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내리 닮지 않았나 싶다. 아름다운 기억은 시간이 가도 추억으로 남는다.☞

성화 최종주자 “손기정 대타 임춘애”

9월 17일 서울올림픽 37주년...日언론 ‘엠바고’ 깨 깜짝교체

스포츠 코너

오는 9월 17일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37주년 기념일이다. 한국체육학회(회장 최관용)는 이날을 기념, 지난 8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국내외 석학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를 여는 등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됐다. 88서울올림픽 개회식에는 당시 대통령 노태우와 전 대통령 윤보선, 최규하,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등 정계의 거물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성화 봉송 최종 주자를 맡느냐였다. 1984년 LA 올림픽 등 역대 올림픽 역시 성화 봉송 최종 주자를 비밀에 부쳤다가 개회식 말미, 성화 입장 때 공개하는 ‘깜짝 쇼’를 벌여왔다. 서울올림픽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분위기로는 누가 봐도 최종 주자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당시 76세)이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올림픽 업무를 총괄하는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당시 올림픽조직위 출입기자단에게 손기정의 성화 봉송 최종 주자 선정 사실을 개회식 당일까지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고 기자단 역시 역대 올림픽 개회식 관행을 감안해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회식 나흘 전인 9월 1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같은 계열의 도쿄신문이 손기정의 서울올림픽 개회식 성화 봉송 최종 주자 선정 사실을 특종인 양 보도했다. 석간 1면에 손기정이 잠실주경기장에서 연습하는 사진과 함께 톱기사로 게재한 것이다. 훗날 손기정은 관계자들에게 “12일 일본 기자가 전화로 성화 봉송 주자 예행연습을 언제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와 13일 새벽 잠실주경기장에서 한다고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고 털어놓았다. 엠바고(Embargo·일정 기간까지 보도를 유예하거나 중단을 의미하는 언론 용어)가 걸려있는 사안을 일본의 특정 신문이 깨버렸으니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은 물론 국내 언론도 발각 뒤집혔다. 국내 언론이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엠바고를 성실히 지킨 언론사만 피해를 볼 수 있느냐”고 항의했고, 입장이 난처해진 박 위원장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과는 개회식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화 봉송 최종 주자의 교체로 이어졌다. 이때 등장한 히로인이 86아시아게임 여자육상 3관왕 임춘애(당시 19세)다. 도입주자 손기정이 성화를 들고 잠실주경기장 남문에서 트랙을 따라 1백m를 돈 다음 최종주자 임춘애가 이를 받아 4백m를 뛰어 성화대 아래 대기하고 있는 3명의 점화자 가운데 하나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 봉송 도입주자인 손기정이 성화봉을 들고 트랙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 봉송 최종주자인 임춘애가 성화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인 정선만(전남 소록산도 분교 교사)에게 성화봉을 넘기면 정선만이 김원탁(건국대 대학원)과 손미정(서울예고 3년)의 성화봉에 불씨를 옮겨 점화하도록 개회식 시나리오가 바뀐 것이다.

박세직은 그의 서울올림픽 회고록 ‘하늘과 땅, 동서가 하나로’에서 ‘개회식 전날(16일) 저녁 잠실주경기장 지하실 개폐회식 최종 점검회의에서 당시 76세의 손옹에게 “고령이어서 달리는 도중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선배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성화를 넘겨줌으로써 고난의 역사를 딛고 번영을 이룬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로 했으니 양해해달라”고 했고 기술했다. 회고록은 이어 ‘손옹은

실망의 빛을 보이는 듯했으나 “그렇게 결정했으면 따라야 하지요”라고 했다고 적었다.

요미우리등 일본언론 오보 사과 외면

이 같은 해프닝의 시발은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이 ‘특종 의식’에 젖어 기자단의 엠바고를 깨고 서울올림픽 개회식 성화 봉송 최종주자를 손기정으로 성급하게 보도한데서 비롯됐고 이에 맞서 올림픽조직위가 최종주자를 임춘애로 교체한 결과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이 끝난 지 37년이 됐지만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은 그날의 ‘오보’에 대해 정정하거나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

“10월 올림픽 포럼 완벽개최에 최선”

하형주 이사장 단독 인터뷰

“1,600여 임직원들과 함께 한국 체육의 위상 제고를 위해 선수 시절의 ‘도전 정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2025 올림픽 레거시(유산) 포럼 및 스마트 시티 & 스포츠 서밋을 올림픽공원 등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을 맡아 10개월째 이끌고 있는 LA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형주(63)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치러낸 19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레거시를 알리느라 열일(寧日)이었다.

다음은 지난달 8월 21일 서울 송파

구 체육공단에서 필자와 인터뷰한 하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오는 10월 올림픽 레거시 포럼 등의 준비 때문에 바쁘시지요?

“예. 10월 20일부터 열흘간 서울올림픽공원 등에서 열릴 2025 올림픽 레거시 포럼 및 스마트 시티 & 스포츠 서밋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서울시 등 50개 역대 동·하계올림픽 개최도시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들에게 동·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한국의 저력을 알리고 체육공단과 올림픽공원 등 레거시의 우수성도 전파할 계획입니다.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 가운데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체육공단과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는 서울이 유일합니다.”

-행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지요.

“첫날에는 올림픽파크텔에서 올림픽 레거시 포럼이 열리며 둘째날에는 서울 반포 세빛섬에서 스마트 시티 & 스포츠 서밋이 개최됩니다. 사흘째에는 강원도 평창으로 이동, 슬라이딩 센터에서 환영만찬이 열리며 나흘째에는 평창올림픽센터에서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총회 개최와 한국문화 체험(장소 오대산 월정사) 행사가 열립니다. 닷새째는 평창올림픽 기념관 등 올림픽 유산 투어, 마지막 열새째는 DMZ전망대를 둘러봅니다.”

-은퇴 체육인 직업 안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난 2월부터 은퇴 선수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로 지원(14억6500만



하형주 체육공단이사장이 지난 8월 21일 대한언론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최근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체육공단 제공)

원), 직업 전환(17억8000만 원), 고용 창출(14억7200만 원)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마감하는 이들 사업에는 모두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60세 이상 원로체육인에 대한 의료비, 생계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중세·본회 부회장>

인생 일대 삶의 기록을 영구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 '新 콘텐츠사업' 각광

우리는 지금 충격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똑똑하기로는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어 이것이 자칫 성장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인류멸망의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이 시에 질 수 없는 절대적 이유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역사성 때문이다. 역사만이 과학을 능가하는 원천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한다. AI의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 역사가 인류의 것 이라고 하면 인간 개개인에는 저마다 삶의 기록이 있다. 다만 그 자취가 남겨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개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첨단 아카이빙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최명우
본지 편집위원장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1900년대 후반 아카이브(archive)는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디지털 객체를 장기간 관리하여 이후의 이용을 보장하는 활동으로 인식됐다. 이 기록의 보존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과정을 아카이빙이라 하며 그 정보는 장기간에서 무한의 미래로까지 보존을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빙을 '만 년의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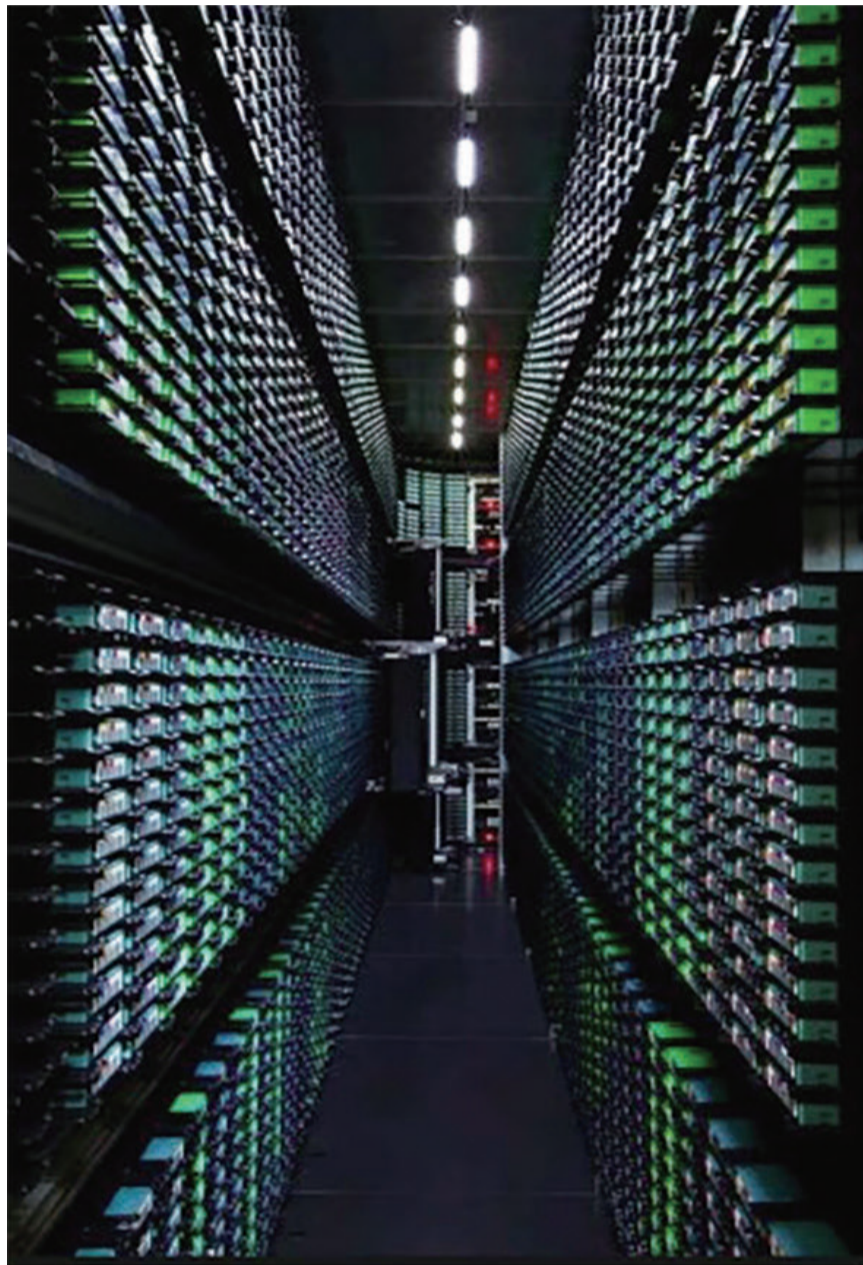
그런데 이 디지털 아카이빙이 개인의 삶의 가치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상의 기능적 기술로 발전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살아

디지털 서비스가 나왔다. AI 추모 서비스와 연계한 웹다임 산업이란 것이다. 개인의 생전 영상, 음성, 이력 등 데이터를 AI 기술로 보존해 사후에도 추모 문화를 이끈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영원한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가치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직업이다.

요즘 세간에 인기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것이 생전 '영상 자서전 출판'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많은 사진들을 사진첩 앨범



지상에서 영원으로 '기억의 통로' 만들어

온 자취와 가치를 알리고 남기는 수단으로 자서전 출판이 1순위였다. 그러나 자서전은 아무나 출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거창한 한 권의 장서를 출판하려면 엄청난 수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유명인이나 부를 향유하는 특정한 좁이어야 꿈꿔볼 수 있는 것이 자서전 출판이며 그들만이 인생일대기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자서전을 출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자신의 과시에 불과한 것일 뿐 곧 잊혀져 기록의 보존으로서는 거의 무용한 것이었다. 이럴 때 세상이 달라져서 기대할만한 자기보존의 아카이빙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빙 활용의 한 예로 사람의 생전기록과 사후 추모를 통합한

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귀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이 두꺼운 사진 모듬은 양이 방대하고 무겁고 자주 들여다 볼 기회도 없어 시간이 가다보면 남기기도, 버리기도 힘든 애물단지가 된다. 이사를 할 때쯤이면 훼손되기 십상이고 사후엔 소멸되고 만다. 이 앨범들을 폐기하고 영상파일로 전환하면 문제는 훌륭히 해결된다. 아카이빙 파일은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누구나 과거의 추억을 불러올 수 있다.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촬영한다. 영상은 물론 음성, 액션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 사람에 따라선 저술한 책도 있고 논문도 있고 비밀스러운 문서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영구보존자료로 재창출하는 것이 '디지털 아카이빙 응용사업'이다.

아카이빙 기록들은 공개를 허용하는 한 언제 어느 공간을 거쳐도 어느 세대 누구나 공유할 수가 있다. 이 보존된 귀중한 자료들은 유튜브 등 영상매체들을 통해 널리 전파할 수도 있다. 또 검색을 통해 누구든 그 자료와 주인공들을 추적 공유할 수 있다.

굳이 시각적 자서전을 출판하길 원한다면 이 아카이빙 자료로 언제든지 책을 만들 수도 있고 e-Book을 만들 수도 있다.

음악 분야에선 LP든 비디오든 디스크가 사라지고 이제는 디지털음원으로 출판 판매 공급된다. 시공을 초월하여 순식간에 세계화되기에 글로

벌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아카이빙의 위력을 타고 나는 것이다.

SBS미디어그룹 창업주인 윤세영 태영그룹 명예회장은 일찍이 자신의 자서전을 출판했으나 책 한권에 방대한 인생의 기록을 담는다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한 듯하다. 남 먼저 아카이빙 작업을 시작했고 자신의 기록들을 보존했으며 특히 좋아했던 골프 분야의 아카이빙 핵심은 다시 책으로 출판하여 지인들에게 증정했다.

국가기관에서부터 기업경영은 그렇다 치고 이제 아카이빙은 개인적인 삶의 관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저 한 세상 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전부를 영원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카이빙이기 때문이다.

이 기록들이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억의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 놀랍다.☞

회우 광장

한명숙이 불렀던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이제는 떠나 보내야 할 추억의 ‘레코드 판’



최금녀
전 대한일보 부녀부 차장,
국제펜클럽 이사, 시인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나는 좋아-

음향기기가 흔치않던 시절, 스피커
에서 흘러나오면 걸음을 멈추는 사람
들이 많았던 노래 “노오란 샤쓰의 사
나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 입장
배경 음악으로 채택되었다.

노오란 샤쓰 입은 말 없는 그 사람
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이 쏠려
아- 아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오란 샤쓰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손석우 작곡(1961년), 1935년생 한
명숙이 불렀다.

시중에 노오란샤츄가 동이 났다.
아나운서 임택근은 “온 세상을 노
랏게 물들인 노래”라고 했다.

1962년에 내한했던 프랑스 가수 이
베트 지로가 한국어로 부르고 취입
했다.

신이 나는 트위스트 리듬도 리듬이
지만, 솔직한 가사를 좋아했다.

-미남은 아니지만 어쩐지 좋은, 어
쩐지 맘에 드는-

나의 노오란 샤쓰는 어디에 있을까.
기차 속일까, 버스 속일까, 오솔길
일까.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도시를 휩쓸고 농촌을 휩쓸고 일본
동남아까지 휩쓸다가

노래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영화로도 이어져 당대의 명배우 신
영균·염영란과 연기를 겨룬 한명숙

가수에게 연기가 부족한 것은 너무
나 당연한 일이라며,

“연기가 없는 것이 더 재미있었다.
나쁘지 않았다”고

팬들은 이상한 평을 덧붙였다.
국가는 화관문화훈장까지 내렸다.

눈물 젖은 두만강, 번지 없는 주막,
홍도야 울지 마라, 군세어라 금순아,
전선야곡을 듣던 우리 귀를 눈물과
한탄, 일본치하와 남존여비, 가난과
전쟁만을 듣던 우리 귀를

한 번에 노오란샤쓰로 채웠다.
남녀노소가 없었다.

혁명의 끝이 어딘지 몰라 마음들이
무거웠기 때문만도 아니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1961년 발표한 한명숙의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레코드.

잡지사 기자 시절 취재차 만난 작곡가 손석우 “가수 될 생각 없느냐”며 한명숙 레코드 선물

늘의 별이 되어볼 수 있었던 기회였
던 것이라는 걸 후에야 알았지만, 그
아까운 기회는 별 의미없이 지나가버
렸지만 그 후로 손석우와 그가 작곡
한 노오란샤츄, 레코드판 만은 보물처
럼 아껴두었던 것이다.

내 목소리에 점수를 준 이유가 무
엇인지, 예술이 무엇인지, 별이 무엇
인지 모르기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아
버지 역시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날
저녁,

“그런 짓 하려면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라”는 말을 남겼다. 그날부터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와 그 노래를
부른 한명숙은 나만의 비밀이 된 것
이다.

그때나 저때나 밤하늘에서는 수많
은 별들이 빛나고, 가끔씩 긴 꼬리를

남기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별
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옛날의 노오
란샤츄 판을 꺼내 어루만지며 내 목
소리에 점수를 준 손석우와, 음악점수
가 조금만 높았더라면...하는 아쉬움
과 지금의 내가 아닌 나의 다른 길을
상상해 보곤 했다.

TV의 트롯 경연이 불만했던 주말,
자식들이 모였다. 그 시절 이야기를
슬쩍 꺼낸 것은 아무래도 나이 탓이
리라.

그때의 아버지처럼 자식들은 내 이
야기에 신중하지 않았고, 점수가 야박
해 나는 조금 서운했다.

잘 생각해 보라며 손석우 선생님이
건네 준 노오란샤츄 판과 가수 한명
숙을 이제는 내 가슴속에서도 떠나보
내야 할 때가 되었다. ☞



“법치주의 지키자” 폭염속 광화문 외침



이들은 왜 대낮 기온 36도에 육박하는 폭염·폭서를 뚫고 광화문 네거리로 밀려들었는가.

오전부터 집결하기 시작한 인파가 낮 12시를 넘자 동화면세점~원효공원 옆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대한문 인근, 파이낸스센터~프레스센터 앞 공간을 꽉 메웠다. ‘집회 안 된다’고 알려진 광화문 광장까지 제각각 수많은 보수단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외쳤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소리가 크면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광화문광장’은 집회나 시위에 제한을 둔 특수한 장소이기에 더더욱 큰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가 보다. <사진·최명우>

명품인생

천개의 바람이 되어 ‘A Thousand Winds’

사람들은 귀신이 무섭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세계의 테러단체들이다. 이들은 무조건 사람을 살상하기 때문이다.

2001년 9월 11일 가공할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사건을 벌인 알 카에다(AI Queda)를 비롯 수니파 무장 이슬람 조직 탈레반, 이란의 헤즈볼라,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일본의 적군파, 영국의 아일랜드 공화군 IRA 등 무시무시한 조직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IRA는 1910년 아일랜드독립운동을 위해 조직됐지만 살인, 방화, 폭과 등을 자행하며 참극을 부르는 다른 테러집단에 못지않다.

1989년 24세의 영국군 병사 스테판 커밍스는 IRA 폭탄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유품을 수습하던 스테판의 아버지는 아들이 종이에 베껴 놓은 시 한편을 발견하고 이를 장례식에서 읽었다. 작자미상의 시 ‘A Thousand Winds’였다. 이 장면이 영국 BBC에 의해 방송되면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아버지를 잃은 미국 소녀가 추도식 때 이 시를 낭독했다. 이 시가 단숨에 유명해지면서 또 다른 바람처럼



럼 세계를 휩쓸었다.

“나의 영정 앞에서 울지 말아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날 위해 울지 말아요/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가을엔 곡식들을 익히는 따사로운 빛이 될 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에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울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서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는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시에 감동한 일본의 작사 작곡가 아라이 만(新井満)이 일본어로 번역해 곡을 붙였다. 팝페라가수 아키카와 마사후미(秋川雅史)가 노래를 불렀고 음반은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며 100만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

했다.

2009년 한국의 카운터테너 임형주가 이를 한국어로 부분 개사를 하여 앨범을 냈다. 그해 김수환 추기경의 기일에 추모곡으로 헌정되었고 5월엔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서도 연주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그 추모식에서 연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태원 압사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이 노래는 관현악곡으로 편곡

살았던 가정주부 프라이가 1932년에 쓴 것이라는 리포트도 있었다. 원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구전으로 율어지던 것이란 설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작자가 아니다. 왜 사람들이 이에 마음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시는 이렇게 일러준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한다. “왜?”

사람의 죽음은 육신의 일시적 소멸을 의미할 뿐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걸 말해준다. 오히려

“나의 영정 앞에서 울지 말아요” 심금 울려

됐고 중요한 행사 때면 당연한 연주곡인 듯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마에스트로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는 언제나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연주곡엔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제목이 붙었다.

지난 2021년 2월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사진)된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무대 영상은 곧 조회수 1300만 뷰를 넘어섰다. 시의 원작자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작자미상이라거나, 미국 시인 클레어 하너의 ‘불멸’이라는 시가 원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적해보니 미국 볼티모어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바람처럼 영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런가.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니 내 영정앞에서 울지 말라”는 그 자유의 선포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삶에 지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통로를 일러주는 지혜로운 알림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아쉬워하지 말고 지난 시간 소중한 삶의 기록을 영구보존한다면 누구나 ‘불멸의 생애’를 재창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강이산·극작가>

오!내고향 세번째 큰섬 전라남도 진도 왕을 세번 배출한다는 ‘보배의 섬’



문관현
본지 편집위원
북한학 박사



진도대교.

진도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백제시대 관부 인진도군(因珍島郡)에서 명칭이 유래됐다. 진도는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고 예로부터 온난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1년 농사를 지으면 3년 먹고 산다’는 말이 전해졌다. 오죽했으면 비옥한 땅, ‘옥주(沃州)’라는 별칭을 사용했을까.

진도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정구역이지만 유달리 왕(王)과 각별한 인연을 자랑한다. 어느 날 진도 출신 원로 정치인이 술자리에서 보배 진(珍)에 대해 임금 왕(王)변에 사람 인(人)과 터럭 삼(彡) 조합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임금이 세 번 나오는 고장이 진도”라고 크게 외쳤다.

첫 번째 임금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삼별초 항쟁 때 승화후 왕온(王濶)이라고 대답했다. 개성 만월대와 똑같은 양식으로 용장산성을 짓고 독립 정부를 통치했다고 한다. 1977년 일본 도쿄대 사료편찬소에서 발견된 ‘고려침장불심조조’란 외교문서에는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 아닌 진도라는 주장과 고려와 일본이 힘을 합쳐 몽골 침략에 맞서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 임금은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신안 하의도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외가는 8.5km 떨어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다. 가사도는 우뚝 솟은 5개 봉우리가 유명한데 이들을 연결하

면 임금왕(王)자를 연상시켜 왕의 기운이 서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세 번째 임금은 누굴까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그 정치인은 한참 머뭇거리더니 “이 사람이 바로 나야 나”하면서 버럭 역정을 냈다. 자기를 몰라본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좌중은 웃음바다를 이루고 말았다.

절로미술관 등 진도 전체가 미술관 또는 박물관 단지를 연상시킨다면 과도한 표현이 될까.

대금 산조를 창시한 박종기 선생을 비롯해 아리랑과 북춤, 들노래 등으로 인해 진도 가서 노래자랑하면 안 된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을 정도다.

진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승

2006년 향토사학자의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됐다. 왜덕산 스토리가 발굴됐고 일본에 알려졌다. 당시 왜장 구루시마 미치후사 후손들이 모여사는 일본 에히메현 주민들이 매년 왜덕산을 방문해 추모행사를 벌였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교류 방문해 우의를 다지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겼다.

인류가 전쟁의 아픔을 막기 위해 국제적십자 조직을 만들고 “총돌 당사국은 사망자를 정중히 매장하고 묘소를 존중할 것이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적절히 유지하고 표시해야 한다.”는 제네바협약을 탄생시켰다. 제네바협약이 완성되기 352년 전에 전라남도 진도군 울돌목 인근에서 살아있는 휴머니즘이 발현된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덕산 정신을 알리기 위해 2020년 9월 왜덕산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준비했다. 2년 동안 숭한 좌절과 도전을 딛고 진도군청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 울돌목 대표적 명소 ‘전통 南畵의 성지’ 윤림산방 경관 뛰어나

청운의 꿈을 품은 분들은 진도에 들러 마지막 남은 왕의 카드를 품에 안기를 기원한다.

진도하면 예술을 빼놓을 수 없으니 조선미술전람회(선전, 1922~1944)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1949~1981) 입선 이상 수상자 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국의 245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을 내면 평균 3명꼴인데 진도 출신은 1982년 이후 입선·특선한 예술인이 137명이다. 윤림산방과 장전미술관, 소전미술관, 나

지는 명랑해전 터 울돌목이다. 군함 속도에 해당하는 13노트 물살을 이기지 못해 숨어마져 육지로 떠밀려올 정도다. 1597년 선조 30년 9월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조선수군 12척이 일본군 133척을 수장시킨 역사 현장이다. 당시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뒤 남해를 거쳐 서해를 타고 올라가 한양을 진격한다는 구상이었는데 진도에서 전멸 당해 뱃길을 돌려야 했다. 호남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더욱 감동적인 사연은 수몰된 일본수군 2천500여 명 시체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돌았는데 진도 어민들이 수습해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줬다. 멀리 일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성된 공동묘지 부지는 왜덕산(倭德山). 일본군은 조선인 코를 베어 전리품으로 삼고 교토 한복판에 코무덤을 조성했다. 하나의 전쟁을 통해 상반된 2개의 무덤이 조성됐다.

400년 동안 묻혀있던 미담 사례는

대회의실과 왜덕산 현장에서 학술회의 및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놀랍게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직접 왜덕산을 방문해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략해 고난의 역사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공식사과 후 고개를 숙였다.

진도는 전국에서 물살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해역을 안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국내 최대 규모의 6,500톤급 세월호를 삼켜버린 맹골수도(孟骨水道). 사고 당시 패닉 상태에 빠진 해양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진도 어민들이 재빠르게 어선을 몰고와 학생들을 구조한 사례는 유명하다.

제주여행을 꿈꾸는 회원들에게 멋진 우회코스를 권하고 싶다. 호남선 종착역 목포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 만나질 또는 하루 진도여행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진도 팽목항에서 쾌속선을 탑승하면 90분 만에 제주항에 도착한다. 도중에 짬을 내 울돌목과 윤림산방, 왜덕산 등지를 둘러보는 진도 여행을 해봤으면 한다.☞



윤림산방.

장석영 본회 회장 수필집 ‘할미꽃 당신’

회우가 낸 새책

장석영 본회 회장(시인·수필가)이 수필집 ‘할미꽃 당신’을 출간했다. 자신의 다섯 번째 수필집이지만, 먼저 번 수필집과 다르다는 이 작품은 그럴만한 사연이 담겨있다. 작가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평범한 청춘 남녀가 만나 55년을 해로(偕老) 하다가 노후 들어 아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회한(悔恨)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한 이야기들이라고 말한다.



명시해야만 한다. 이렇게 수필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거뜬히 소화해 낸 이 작품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작가는 작품 서두에 이 수필집을 먼저 간 아내에게 바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이 수필집은 부부간의 짙은 사랑을 주제로 삼은 사랑 이야기이지만 이 글을 통해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마주하게 됐다”

아내 타계1년...눈물로 써 낸 진한 사연들

김 전 문학평론가는 서평에서 이 작품은 체험과 사색, 감성과 지성의 수필로서 ‘부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 평론가는 장석영 수필집 『할미꽃 당신』을 마주하곤 모처럼 작가와 하나되어 그 감성의 늪에 폭 빠지게 됐으며 눈물로 써내려간 이 수필집을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냈다. 그의 서평을 좀더 소개하자.

“수필을 자기 고백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회한까지 숨김없이 드러낼 때 독자의 공감을 얻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장석영 작가의 슬픈 이별과 삶의 애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한 작품 한 작품을 읽어 내

려가다 보니 작품 속에 녹아있는 아내에 대한 끈끈한 부부애가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작가는 시종일관 담담한 필체로 살아온 인생에 대한 서사를 차분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가가 울면 나도 울고, 작가가 고통스러우면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했다. 『할미꽃 당신』에는 고통에 대한 사유가 장맛비처럼 질펀하게 흘러내린다. 아내에 대한 사랑을 밭고랑에 깔고, 밭매는 농부의 심정이 되어 독자와 작가가 하나가 되었다.”

그는 “수필은 체험을 넘어 서사와 서정을 깊은 사유로 끌어가야만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체험과 관조, 성찰이 주조인 문학이다. 그러나 체험보다는 가치 있는 명제로 주제를

고 밝히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독자에게는 천둥 번개와 같은 깨우침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글들로 문학성 획득에도 성공한 작품집”이라고 소개했다.

장석영 작가의 수필은 작품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또 작가가 빚어내는 서사도 한없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작가가 먼저 느끼고 문장이 뒤따르며 그 기분과 감정을 고향해 나가야 문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작가의 진솔한 정서가 녹아 있고 서사와 서정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수필이다.

이달의 시

바위

바위는 평생 움직이지 않습니다
슬프거나 즐거워도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한 자리서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봅니다
바위는 인내와 덕과 같은
높은 품격을 지녔나 봅니다
그래서 바위가 좋습니다
말 많은 세상이지만
바위는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풀은 가볍습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인은 시류에 따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사랑합니다

장석영
시인·수필가

회우에세이

어머니의 죽음은 가장 큰 이별의 아픔이었다. 외로움의 골은 깊었고 그리움은 사무쳤다. 어머니는 쉰 셋, 음력 선달 초닷새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셨다. 그날 희끗희끗 흘날리던 눈발은 어머니의 하얀 영혼처럼 잿빛 하늘을 낮게 떠돌았다. 고교 입시준비를 하던 아들이 팔십대가 됐으니 세월이 무상하다. 효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가슴 저리고 멍멍했다.

어머니가 흠이 되었다. 63년 만에 개장한 무덤 속엔 뼈 한조각 남지 않고 산화됐다. 파묘작업을 하는 인부가 문화재를 발굴하듯 호미로 조심스레 바닥을 긁어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시신의 완전한 산화는 처음 본다”고 신기해 한다.

‘사람은 흠에서 태어나 흠으로 돌아간다’는 생명과 죽음, 자연 순환의 의미를 절감하며 “감사합니다”를 되뇌었다. 흠으로 빛은 인간이 죽어서 흠으로 돌아가는 기독교의 영적 순환이

떠오른다. 불교의 생기 소멸 법칙이나 공(空)의 개념이 겹치면서 무념무상이 된다.

36년 된 아버지 묘소에선 한 줌도 채 안 되는 뼈가 나왔다. 파묘를 하며 진흙이 잘 다져져 작업이 힘들다고 했는데 파내려갈수록 마사토가 포슬포슬하다. 묘소 옆으로 비가 오면 물

63년만에 개장한 묘소...뼈 한조각 없이 산화

길이 생겨 물이 차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묘소작업 4인조 팀장은 “뼈 색깔이 황갈색으로 잘 산화됐다”며 “명당이 분명하다”고 말해 “고맙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젊었을 적엔 부모 묘소에 신경을 많이 썼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후 가장 먼저 싹을 틔운 생명력 끈질긴 쇠뜨기와의 전쟁을 벌이며 잔디를 살려냈다. 상석을 만들고 주목과 연산홍

으로 묘 주변을 단장했다. 봄엔 사초, 가을엔 벌초를 하며 보살폈다. 묘소에 달린 과수원 소작농이 벌초를 대신 해주면서 산소에 관심이 차츰 줄어들었다. 아들도 이리한데 손자, 증손자가 제대로 돌보겠느냐는 회의가 들었다.

본디 매장을 선호하는 입장이었다.

죽은 뒤 부모님 곁에 묻히려 했다. 화장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두 번 죽는 것이라는 자의식이 강해 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죽기 전에 산소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후손에게 산소 돌보는 부담을 남기지 않으려는 배려다. 부모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세태의 변화도 작용했다.

장례문화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년 전만해도 매장화장의 비율이

엇비슷했으나 최근 매장률은 10% 이내로 떨어져 화장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2008년 자연장을 새로운 장례 방식으로 도입했으나 포화상태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한 해 사망자가 30만 명 넘게 되자 납골당과 수목장도 한계가 왔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을 지난 1월 합법화하는 계기가 됐다. 무한한 바다가 골분 정도는 환경오염 없이 흡수해주기 때문이다. 산분장을 암암리에 활용해 왔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뿌릴 수 있게 됐다.

산분장지를 갖추는 지자체에는 정부가 비용의 70%를 지원한다니 저렴한 비용으로 산분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바다장은 어장과 선박통행로, 양식장 부근은 안 된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소백산 산자락에 뿌려져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동해바다에 뿌려져 오대양을 누비고 싶다. “산이든 바다든 괜찮다”. 선택은 자식들 몫으로 남겨둔다. ☎

(이규섭 본회 전 사무총장·편집위원장)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7.25 ~ 2025.8.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조덕동(2024-2025)60,000 한영탁(2022-2023)60,000

김영환B(2025)30,000 황우연(2025)30,000

조원석(2026)30,000

만보회 덕수궁 돌레길 산책...21명 참석 성황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달 8월20일 14차 걷기 행사로 덕수궁을 산책했다. 이날 섭씨 34

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본회 장석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 21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는 사학자 임한순 회우가 궤내 곳곳을 둘러보며 해설을 해줬다. 특히 석조전은 1907년 일제 강점기 순종에게 왕위를 양위한 고종이 머물러 황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돈덕전에서 '항일유산' 특별전도 감상했는데 돈덕전 앞 회화나무와 그 주변의 여름꽃들이 폭염 더위를 잊으라는 듯 환한 자태로 우리를 반겼다. 이어 회원들은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참석자 : 강두모, 김기원, 김성녕, 김유찬, 김조영, 박기병, 박종서, 박교원, 안종우, 안평선, 안홍렬, 임한순, 유진수, 이규진, 이종세, 장석영, 장 옥,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

<최영배 총무>

산악회 9월 23일 서오릉 답사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황우연)는 9월 23일(화) 고양시 '서오릉'을 답사한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은 서쪽에 있는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 등 5기의 '능'(陵)이 자리한 곳으로 '동구릉'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선왕조 왕릉 군이다. 무려 56만여평(1,870,267㎡)의 평지 같은 넓은 소나무 숲속에 공원처럼 잘 가꾸어져 있다. 여름철 시원한 그늘아래 걷기코스로도 사랑받는 곳. 2시간가량 벤치에서 쉬어가며 여유롭게 5릉을 답사하고 역사관도 둘러본다.

서오릉에는 경릉(덕종과 소혜왕후)·창릉(예종과 안순왕후)·익릉(숙종의 원비 인경왕후)·명릉(숙종의 제1계비 인현왕후·제2계비 인원왕후)·홍릉(弘陵,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등 '능' 5곳과 명종의 순회세자 묘 '순창원', 영조 후궁으로 사도세자 어머니인 영빈 이씨 묘 '수경원', 숙종 후궁이자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의 묘 '대빈묘'도 있다.

- 일시 : 9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 집결장소 :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 매표소 앞 (6호선 응암역 2번 출구·신사오거리 정류장에서 702A 버스 서오릉 행 버스 승차, 구산역 1번 출구·예일여고 정류장에서 서오릉 행 707번 승차)
- 오찬 : 오후 12시 30분 (추후 고지하는 인근 맛집으로 바로 오셔서 친교도 환영)
- 참가비 : 2만원(참가신청 : 김조영 부총무 010-8225-8500)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최노석 회우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50 청계벽산아파트 106동 1901호

회우동정

장석영 본회 회장 세계한민족 지도자회의 고문 위촉



장석영 본회 회장은 지난달 8월1일 세계한민족 지도자회의(이사장 정영국)에서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전·현직 한인회장, 한글교육자, 민주평통위원, World OKTA 등 경제단체, 국내외 법인대표, 정책기관장 등 1000여명의 지구촌 한민족 리더들이 모여 나라를 걱정하고 정보교류를 한다. 장 회장은 또 지난달 8월 4일 세계효운동본부(이사장 진요근) 명예총재로 위촉됐다.

정구종 본회 회우 한일포럼상 수상



정구종 본회 회우(전 동아일보 편집국장·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는 지난달 8월 19일 제10회 한일포럼상을 수상했다. 정 회우는 안정된 한일관계 조성과 양 국민의 인식 공유, 우호 친선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민섭 자문위원장, 우남애국 기도회 초청강연



이민섭 본회 자문위원장(전 문화체육부장관·4선의원)은 지난달 8월 4일 한미동맹 이승만 통일재단 주관, 강남임마누엘교회 주최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우남애국 기도회'에서 초청강사로 강의했다.

강한필 원로회우 경향사우회 감사패



강한필 본회 원로회우(전 경향신문 편집국장)는 2025 경향사우회(회장 황우연) 정기총회에서 60년간 경향신문과 사우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사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채청 재해구조협회 제12대 회장 취임



임채청 한국신문협회 회장(사진)이 8월 13일 희망브리지 재해구조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

언론가 소식

한국신문윤리위 '혁신 비전 선포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오는 9월18일 제1000회 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위원회는 1961년 창립 이래 64년간 바람직한 언론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기념해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위원회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선도하는 '혁신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한국 신문협회 지역신문 경영혁신 세미나

한국 신문협회는 오는 11·12일 이틀간 서울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지역회원사 발행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문 경영혁신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신문 창간 121주년 기념식 개최

서울신문(발행인 김성수)은 지난 7월 11일 호반파크 2관에서 창간 12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KBS 사우회 회보 제호 변경

KBS 사우회는 회보의 제호를 오는 10월 1일자 제282호부터 한문체에서 한글체로 바꾸기로 했다.

SBS 사우회 창립 19주년 기념식

SBS 사우회는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서울 등촌동 사우회 사무실에서 사우회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용식 회우 (전 KBS보도본부장·문공부차관·3선 국회의원) 8월2일 별세.



최병요 회우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본회 전 사무총장) 8월27일 향년 80세 별세.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위원장 최명우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 La Dolce Vita

**Digital
Work
Archiving**

The Thousand Winds

Do not stand By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 -
I am the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s in snow
I am the sunlight on ripened grain,
I am the gentle, autumn rain.
As you awake with morning's hush,
I am the swift, up-flinging rush
Of quiet birds in circling flight,
I am the day transcending night.
Do not stand
By my grave, and cry -
I am not there,.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말아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익히는 따사로운 빛이 될 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 게요

아침에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울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서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 정보·통신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록 보관소 내에 파일을 적재하고 찾아사용하게 하는 작업

소중한 삶의 기록을 영원히 보존하세요



”
이제 사진 앨범은 버리세요
값진 자료를 디지털로
보관 영원히 남길
영상자서전을 만들어 드립니다
“

Digital Art

(주)서울 아카이빙텍 대표 세린-황

☎ 010-4148-0188

